

2018 정기구독, 지금 신청하세요!

세상을 살리는 여성들이 만드는

월간 한국 YWCA



구독료 1년 2만원

문의 02-774-0230 이메일 ywcapr@hanmail.net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관악구청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한국 YWCA

2018년 1·2월호
 January · February
 Vol.547

특집 I 정기총회

우리 YWCA, 이것만은 남다르다

특집 II YWCA정책

탈핵, 왜 에너지 전환인가
 성평등운동 지금은 '젠더다'

기획

'페미니즘 리부팅'이 될 것인가
 '맞는 페미'들이 모인다

칼럼 3.1운동과 여성

그 많던 만세운동 소녀들은 어디로 갔을까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7(수)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주관 | YWCA (사)한국YWCA연합회



YWCA 회원들의 영원한 고향 '버들캠프장'



1968년 3월 버들캠프장 기공식



청년들이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있다.



1978년 한·미YWCA 아시아연구협회의단 방문



1985년 청년전국대회

YWCA 회원들이 숙식을 함께 하며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버들캠프장은 YWCA의 자랑거리다. 캠프장 이름은 땅을 기증한 유일한 박사의 성 '버들 유(柳)'에서 났다.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유한양행을 설립해 기업가로 성공한 유일한 박사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실린 유일한 기업인이다.

연합회 회관 신축과 함께 추진된 YWCA 캠프장 건립은 1965년 11월 유일한 박사가 세운 유한양행사회교육신탁재단(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 현재 유한재단)이 경기도 소사에 있는 대지를 기증하면서 본격화됐다. 유박사는 "땅을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은행에 2만달러 이상의 저축이 있어야 하고 설계도가 완전히 구비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YWCA는 설계도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2만달러가 문제였다.

박에스더 연합회 고문은 미국YWCA에 도움을 청했고, 월가 증권브로커 베어드를 소개받았다.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자선단체에 수표를 보내는 자선가였다. 박에스더 선생이 베어드의 사무실을 찾아 조리 있게 목적을 설명하자 그는 선뜻 수표를 끊어주었다. YWCA는 1968년 3월 18일 기공식을 하고, 그해 10월 본관을 준공했다. 이후 독일개신교개발사업지원본부(EZE), 김신일 선생, 기업인 정원성·최문준 등의 기부로 숙소, 한국관, 수영장을 잇따라 구비했다.

YWCA는 1973년 7월 23일~28일 버들캠프장에서 열린 제25회 전국대회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베어드, 유일한 박사의 장녀 유재라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캠프장은 전국대회, 대학·청년Y와 Y-틴 행사, 각종 간사훈련, 실무자

세미나·워크숍, 수련장 등으로 이용되며 회원들에게 고향 같은 정겨움을 안겨주었다. 특히 청소년·청년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그들의 꿈과 이상을 펼쳐나간 젊은 날 추억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다.



2017년 생명숲돌봄센터 보육사교육

2018. 1·2 한국YWCA



표지이야기

서지수 Y-틴 전국협의회 회장과 손지수 대학·청년 Y 전국협의회 회장이 2018 정기총회에서 평창올림픽 펼침막을 들고 힘차게 뛰고 있다.

2018년 3월 주요일정

3월 8일

지역위원장 연수

3월 10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3월 14일

신임 사무총장 연수

3월 20일

제200차 탈핵 불의날 캠페인
독일환경자연보전연맹 'BUND' 초청강연

3월 22일~23일

전국사무총장협의회

제54권 제1호 통권 547호

2018년 2월 20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백수경·백혜진·신선·정린·정선경
조한나·이경순·최수경·황혜숙

편집 배정미·신미희·문윤희·손지수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신임 회장 인사말** 겸허히 귀 기울이며 함께 가겠습니다 | 한영수
- 05 **말씀 묵상** 소원 | 고명진

특집 I '2018년도 정기총회'

- 06 ① 연합회 정기총회 현장 | 편집실
- 08 ② 2018~2019 주요사업 | 편집실
- 10 ③ 회원YWCA 정기총회 현장 | 편집실

특집 II '2018~2019 YWCA 정책'

- 14 ① 탈핵, 왜 에너지 전환인가 | 김혜정
- 16 ② 성평등운동 지금은 '젠더'다 | 이주영

기획 '우리 시대 페미니즘'

- 18 ① 2018년은 페미니즘 리부팅이 될 것인가 | 이하나
- 20 ② 교회 여성과 페미니즘 '믿는 페미'들이 모인다 | 최유리

- 22 **강연** 기독교성들은 여성혐오 시대 쟁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편집실
- 24 **현장** "Here I am"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운동 | 천유란
- 26 **칼럼** 3.1운동과 여성 '그 많던 만세운동 소녀들은 어디로 갔을까 | 이윤숙
- 28 **청년토크** '수도권 쏠림' 현상 | 김밥·니키·당근·배추·쪄쪄·콩이·하니
- 30 **이달의 현장①**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총회 | 편집실
- 32 **이달의 현장②** Y-틴 전국협의회 총회 | 문윤희
- 34 **이달의 현장③** 김필레리더십캠프 참가기 '정신여고와 김필레' | 편집실
- 36 **회원Y 활동현장을 찾아서** 목포YWCA 돌봄회원 공간 '플랫폼' | 신미희·손지수
- 38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뮤지컬 <레드북> | 최형미
- 40 **연합회 소식**
- 43 **회원YWCA 소식**

겸허히 귀기울이며 함께 가겠습니다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제46대 회장

부족한 제가 한국YWCA연합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떨리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전국 YWCA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소명으로 생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한국YWCA는 'Go Back, 고백(告白), Go 100'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YWCA를 아우르는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년의 YWCA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회와 전국 52개 회원YWCA의 모든 회원들이 함께 주제를 결정하고, 운동성을 갖는 활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주제 아래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의 4대 과제를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탈핵생명운동과 성평등운동을 지난 회기에 이어 전국 중점과제로 정하고 한 단계 발전한 운동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두 가지 중점운동을 중심으로 6.13 지방선거에 대비한 정책의제 개발과 유권자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별 회원대회를 통해 2018-2019 운동정책의 기본관점인 지역과 여성주의 관점을 지역에서 어떻게 살려나갈지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아울러 창립 100주년을 바라보며 기획한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두 번째 순례가 광주YWCA 주관으로 지리산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1922

장학금 모금에 이어 젊은이들의 리더십을 키우고자 하는 '청년 피스보트' 준비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사업을 연합회와 함께 지역에서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회원YWCA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과 100주년을 건강하게 준비하기 위한 구조연구, 운영체계 마련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섬기는 자세로 임하기 위해 첫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둘째 회원들의 소리를 겸손히 받으며, 셋째 시민들 특히 여성과 청년의 기대를 새겨들겠습니다. 달리하는 의견에도 귀를 열고 겸허히 수용하며, 소통에 힘쓰고, 서두르지 않고 함께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학Y 활동 시절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업인 YWCA 일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료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 52개 회원YWCA와 함께 모든 회원들을 YWCA를 위해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YWCA로 세워지는 일에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YWCA 회원들이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으로 그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열린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감사와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질 96주년 한국YWCA를 위해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함께 걸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2018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원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이사

빌립보서 1장 19~20절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새번역성경)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방향과 목적지가 어디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빠르고 느린 것은 상대적입니다. 남들 눈에는 느린 것 같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합니다. 인생도 YWCA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모두 소원을 가집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소원은 무엇인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는 삶의 방향과 목적, 가치관, 한걸음 더 나아가 생사관(生死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원은 이 땅의 물질과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낮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낮은 가치는 바로 돈과 권력입니다. 높은 가치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YWCA 정신이 여기 있습니다. 한 평생 YWCA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주변 사람들 앞에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

끄러운 일을 하면 담대하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단어로 바꾸면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잘못에 대한 과거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사소한 일에도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4복음서에서 천국 이야기보다 돈, 물질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십니다. 천국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존귀하게 되도록 하는 삶을 살면 주께서 나를 높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함을 믿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이야기했던 바울의 아름다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로 창립 96주년을 맞은 한국YWCA연합회는 2월 6일(화)부터 7일(수)까지 서울하이유스호텔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2018~2019 정책 채택, 2017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2018년도 사업 및 예산 승인, 신임임원 선출 등을 처리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52개 회원YWCA 회장, 사무총장 등 대표를 비롯해 연합회 직무상 대표, 실무활동가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한영수 신임 회장 선출

첫날인 2월 6일, 전국에서 회원YWCA 대표들이 속속 도착해 서로 인사를 나눴다. 기대와 긴장감이 가득한 가운데 첫 일정으로 신임 공천위원과 실행위원을 뽑는 투표가 진행됐다. 개회를 앞두고 신정숙 포항YWCA 사무총장이 포항지진 피해성금을 모아준 것에 감사를 전했다.

이명혜 연합회 회장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시작되었다. 서지수 Y-틴 전국협의회장이 대표로 성경을 읽고, 김기석 청파감리교회 목사의 설교가 이어졌다. 김기석 목사는 ‘악마의 셴법을 넘어’라는 주제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다”며 “YWCA가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순서는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

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시민사회 대응과 과제 : 문화와 소통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주철환 대표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며 “영적 교제, 대화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며 미래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무회의1에서는 2017년 감사보고, 결산보고, 사업보



위촉받은 신임 5부 지역위원장. 왼쪽부터 중부 김정민 대전YWCA 회장(두 번째), 동부 유영은 대구YWCA 회장(네 번째), 경기 정성옥 안양YWCA 회장(여섯 번째), 북부 조종남 서울YWCA 회장(일곱 번째), 서부 민혜원 광주YWCA 회장(아홉 번째)이 사무총장들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이명혜 회장이 손지수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회장(왼쪽)과 서지수 Y-틴 전국협의회 회장(오른쪽)에게 1922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고, 2018년도 1922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손지수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회장과 서지수 Y-틴 전국협의회 회장에게 전달된 이번 장학금은 대학·청년Y 중앙임원과 운영위원, Y-틴 중앙임원 등 30여명에게 수여된다.

위원회와 연합회 실행위원 모임, 연합회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사무회의2)가 진행되며 이날 일정은 마무리됐다.

‘미투운동’ 지지, 평창올림픽 평화정신 결의


2월 7일, 토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사무회의3이 이명혜 연합회 회장의 사회로 열렸다. 전날 지역위원회 모임에서 선출된 신임 5부 지역위원장을 소개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성옥(안양YWCA) 경기지역위원장, 유영은(대구YWCA) 동부지역위원장, 조종남(서울YWCA) 북부지역위원장, 민혜원(광주YWCA) 서부지역위원장, 김정민(대전YWCA) 중부지역위원장이 회원YWCA 협력을 이끌게 된다.

토의안건으로 △2018~2019 한국YWCA 정책 채택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보조금 반환을 처리했다. 2018~2019 정책으로 탈핵생명,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을 4대 운동과제로 정했다. 특히 젠더 관점과 지역성을 강화한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동으로 지역 여성운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의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8쪽 참조)



이명혜 목포YWCA 회장(왼쪽)이 창립70주년 기념사업으로 조성한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지원금을 이명혜 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목포YWCA 창립70주년 기념사업으로 조성한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지원금 2천만원을 이명혜 회장이 연합회에 전달했다. 또한 서지현 감사의 용기 있는 성폭력 피해 폭로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Me Too·성폭력 피해고발)을 적극 지지하는 통영·광주YWCA 제안에 따라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에 전국 52개 회원YWCA가 발벗고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어 남북화합의 새 장을 열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릉YWCA의 제안으로 평창의 평화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YWCA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도 다짐했다.

마지막 순서로 신·구회장 이·취임식, 결단과 파송의 예배가 열렸다. 지난 2년간 열정으로 YWCA를 위해 헌신한 이명혜 회장의 감동적인 이임사와 함께 제 46대 회장으로 선출된 한영수 신임 회장이 취임사를 했다. 한영수 신임 회장은 “100년의 YWCA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달려 있다”면서 “회원들의 소리를 겸손히 받고, 시민들 특히 여성과 청년의 기대를 새겨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신임 제1부회장에는 원영희 제2부회장이, 제2부회장에는 이종임 제2회계가 각각 선출됐다.(신임 회장단 약력과 신임 공천위원, 실행위원 명단은 9쪽 참조) 

2018~2019 한국YWCA 정책

주제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탈핵으로 생명평화, 성평등으로 정의를

4대 운동과제

탈핵생명운동

탈핵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
지역사회 만들기

- 지역 에너지전환과 자립
-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폐쇄
- 국가 방사능 방재대책 전면 재수립 촉구
- 식품방사능 안전체계 구축

성평등운동

여성이 참여하는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 성평등 인식과 문화 확산
- 선거와 정책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확대
-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 여성폭력 근절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평화통일운동

평화교육과
민간교류 확대로
평화사회 만들기

- 평화교육 확산
- 민간협력,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 북한어린이돕기 확대
- 대북지원 확대

청(소)년운동

청소년, 청년이
삶의 주체로 서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

- 청(소)년 주체성 확립
- 회원YWCA 청(소)년운동 환경기반 강화
- 청(소)년 이슈정책 발굴과 대응
- 글로벌청(소)년리더십 강화

영
정책

- 회원YWCA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 회원YWCA 핵심지도력 확보 및 역량강화
- 회원YWCA 회원확보 및 재정건전성 확보
- 회원YWCA 행정기반 강화
- YWCA 목적과 정체성에 부합하는 부속시설과 외부지원사업 운영

한국YWCA연합회 신임 회장단(제46대)



원영희 제1부회장, 한영수 회장, 이종임 제2부회장이 한자리에 모였다(왼쪽부터)

제1부회장 원영희

1973~1976 대학YWCA 회원
1978~1979 서울YWCA 간사
2000~2017 연합회 실행위원
사회개발위원장
인력개발위원장
세계YWCA 이사
탈핵생명위원장
2003~2006 연합회 임원(제2회계)
2014~2015 연합회 임원(제1서기)
2016~2017 연합회 제2부회장

회장 한영수

1968 대학YWCA 회원
1970~1971 이화여대 대학Y 회장
1992~2017 연합회 위원
연합회 실행위원
인사위원장
회원Y협력지원위원장
연번지원특별위원장
복지사업단 이사
2014~2015 연합회 임원(제1회계)
2016~2017 연합회 임원(제2부회장)

제2부회장 이종임

1968 Y-틴 회원
1969 Y-틴협의회 부회장
1971~1972 서울Y-틴클럽
대학생어드바이저 회장
1997~2017 연합회 실행위원
2000~2003 연합회 임원(제2서기)
2014~2017 연합회 Y아카데미위원장
연합회 장학위원장
연합회 탈핵생명위원
2016~2017 연합회 임원(제2회계)

신임 공천위원, 실행위원, 지역위원장

공천위원(4명) 연합회 : 차경애, 최만자 회원YWCA : 정동신(청주YWCA), 하선규(부산YWCA)

실행위원(14명) 40세 이하 : 손정원, 이아람
41세~50세 : 한미미, 이은영, 정유진, 함희경, 윤수정
51세~60세 : 김은주, 백혜진
61세~70세 : 최형선, 원영희, 장미란

지역위원회 추천 : 김말숙(인천YWCA), 문상순(울산YWCA)

지역위원장(5부) 경기 : 정성옥(안양YWCA), 동부 : 유영은(대구YWCA), 북부 : 조종남(서울YWCA), 서부 : 민혜원(광주YWCA), 중부 : 김정민(대전YWCA)

우리 YWCA, 이것만은 남다르다!

매해 1월이면 회원YWCA마다 정기총회를 연다. 지난해 활동을 평가하고 새해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회원YWCA 총회 현장을 사진을 통해 만나본다. 사진을 보내온 회원YWCA 소식을 모았다.

북부지역

①인천YWCA Y합창단의 찬양 ②동해YWCA 최연소·최고령 참가자 ③춘천YWCA 단체사진 ④강릉YWCA 목적제창을 하는 회원들 ⑤서울YWCA 50년 봉사상을 받은 송순옥 증경회장



동부지역

①양산YWCA 지방선거 대응의제 투표 ②김해YWCA 이사, 공천위원 증서 수여 ③사천YWCA 촛불의식 ④포항YWCA 합창단의 찬양 ⑤부산YWCA 2018년도 예산(안) 결의 ⑥마산YWCA 식탁교제 ⑦거제YWCA 민들레합창단의 노래공연 ⑧창원YWCA 사업계획 심의 동의·제청 ⑨울산YWCA 장학금 수여식 ⑩대구YWCA 행운권 추첨 ⑪통영YWCA 아코디언 축하공연



경기지역

①의정부YWCA 이사들의 선서 ②고양YWCA 명예이사 추대식 ③수원YWCA 총회 바자회 ④안산YWCA 북한어린이 돕기 저금통 나누기 ⑤성남YWCA 어린이집 원생들의 축하공연



서부지역

①광주YWCA 헌신예배 ②남원YWCA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댄스공연 ③목포YWCA 대학·청년Y와 Y-틴의 특별찬양 ④여수YWCA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⑤제주YWCA 총회사 낭독 ⑥전주YWCA 평생회원패 수여 ⑦익산YWCA 합창단의 노래 ⑧서귀포YWCA 소년 소녀합창단 출신 회원 축하연주



중부지역

①천안YWCA 희망세상 특송 ②제천YWCA 정기총회 ③논산YWCA 장학금 받은 청소년들의 밝은 모습 ④대전YWCA 북한어린이동기 저금통 나누기 ⑤청주YWCA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하모니카민들레 회원들의 연주 ⑥세종YWCA 어린이클럽 회원들의 오카리나 연주 ⑦충주YWCA 4대 정책과제 퍼포먼스



신임 회장들이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에서 특송을 부르고 있다.

회원YWCA 신임 회장 소개	
거제YWCA 임옥수 회장	전주YWCA 권경미 회장
김해YWCA 김영미 회장	제주YWCA 고미연 회장
마산YWCA 손혜원 회장	진해YWCA 윤미자 회장
순천YWCA 김선숙 회장	청주YWCA 김옥순 회장
여수YWCA 이명자 회장	통영YWCA 원필숙 회장
익산YWCA 박연국 회장	평택YWCA 유순남 회장



부천YWCA, 부천YMCA 등 시민단체는 2014년 7월 16일 부천자원순환센터에 부천시민햇빛발전소를 건립했다.

세계는 재생에너지 시대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석탄 비중 축소(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석탄발전 조기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확대 등의 에너지정책을 세우고, 6기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주도하는 세계 에너지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정책이다. 재생에너지는 2016년 세계 신규 전력설비의 62%를 차지했다. 2017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용량은 160GW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용량은 새로운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덴마크, 독일, 남호주는 이미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하루 전기수요량의 3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 분야 씽크탱크인 아고라(Agora Energiewende)의 다니엘 아기로폴러스 선임연구원은 풍력과 태양광이 단가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육상풍력은 kWh당 6~9 유로센트, 태양광은 8~9 유로센트의 발전단가를 나타낸 가운데 석탄은 7~11 유로센트, 원전은 6~13 유로센트로 분석됐다.

2016년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980만명으로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2,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 BMW, 필립스 등 세계적 기업들이 소비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보급하려는 추세는 100개 회사를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시민들이 만들어낸 독일 에너지전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아베 정부는 원전추진 정책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일본은 7년여간 거의 원전가동 제로 상태에서도 전력공급이 유지됐다. 일본 정부는 원전사고 후 도입한 발전차액지원제도(고정가격구매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0년 10.5%에서 2015년 16%로 늘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원전폐쇄 정책을 결정한 독일은 2011년 17기이던 원전이 7기로 줄었으며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에네르기벤데'(Energiewende 에너지전환) 계획에 있다. 1980년대 도입된 독일의 에너지전환 개념은 2000년 사민당과 녹색당 연합정부에 의해

본격화됐다.

독일 정부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원전을 폐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재생에너지법을 도입했다. 전력회사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한 사람들이 20년 동안 경제적으로 손해 보지 않게 차액과 판매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다. 재생에너지법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크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2009년 우파정당(기민당, 자민당)이 정권을 잡은 뒤 독일 에너지정책은 후퇴했고, 원전폐쇄 시한을 연장했다. 곧이어 터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국민 저항에 직면한 메르켈 정부는 다시 원전폐쇄와 에너지전환 정책을 결정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독일의 목표달성은 더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비중을 35%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벌써 달성해 2017년 37%를 넘었다. 실제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를 공급하는 지역이 늘고 있고,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도 1천여 개에 육박하고 있다.

YWCA의 새로운 에너지운동

독일 에너지전환은 시민들이 만들어낸 결과다. 1970년대부터 탈핵운동을 벌여온 독일 시민들은 한명 한명의 개인이 시민발전소를 만들며 에너지전환 운동을 펼쳤다. 2017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중 개인이 35%, 협동조합이 14%, 농민이 11%인데 반해 독일 4대 전력회사 비중은 5%에 불과하다.

시민에 의한 에너지전환 운동이 본격화되기 전 독일은 지금의 한국만큼 원전 비중이 높았다. 비용지불과 불편을 감수하며 수많은 시민발전소를 만들어 거대 원



전 전력회사에 맞선 재생에너지동맹(German Renewable Energies Federation)은 독일 에너지전환의 힘이 되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서 주택 건물 등 자가용 태양광 확대를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자인 협동조합과 농민(100kW 미만), 개인사업자(30kW 미만)에 한해 5년간 재생에너지 의무구매와 20년간 수익을 보장하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했다.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 사업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주도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과 지원, 해상풍력단지 및 수상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꼴찌다. 값싼 전기와 편리함에 익숙한 사회에서 에너지전환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원자력계 저항 역시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에너지전환의 기반을 마련해 후퇴 없는 탈원전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곳곳에서 원전 없이 가능한 다양한 에너지전환 모델이 나와야 한다. YWCA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발판으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회원 출자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동맹이 가능하다. 탈원전의 종착역은 에너지전환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에너지운동, 2018년 YWCA 탈핵운동이 찾아야 할 길이다.



한국YWCA는 창립 이후 96년간 여성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구조에서 여성들의 인권신장과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왔다. 사회경제적 여건은 변화하는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불평등한 위치에 서 있는 여성들을 위해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의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법제도 개선운동을 펼쳤다. 또한 시민인식 개선활동이나 캠페인, 교육 등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문화 확산에 주력했다.

‘젠더’라는 렌즈가 필요하다

오늘날 남녀의 기계적 평등은 일부 분야에서 이뤄졌지만 아직까지도 성차별은 여전하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2010년 이후 140여개국 가운데 100위 이하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014년부터 OECD 국가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해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는 매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규범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여성 불평등은 경제영역에서 임금 격차처럼 수치나 통계로 명백히 드러난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위력과 폭력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여성

배제와 여성혐오 문화까지 사회 전반에 존재한다.

여성운동의 과제는 개인의식과 태도에서부터 타인의 생각과 행동, 사회구조와 조직관행, 정책과 집단문화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사적 영역인 섹슈얼리티부터 공적 영역인 여성의 대표성 문제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불평등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예술 등에서 전방위로 나타난다.

문제의 핵심은 여성들이 이 거대한 배제와 차별, 억압의 구조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평등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어떤 관점을 갖고 실천하는가에 있다. 해결의 열쇠는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깨닫고 자각하는 여성 주체에게 있다. 그래서 여성단체의 성평등운동에는 ‘젠더’라는 렌즈가 필요하다. 젠더 관점은 여성과 남성이라

는 생물학적인 성이 범주화하는 여성, 남성의 분류와 그에 따른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되고 사회화된 ‘젠더’로 여성과 남성을 바라보고 서로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불평등 해소를 가져오는 성평등한 사회를 말한다.

YWCA 정책, 현실정치에서 실현하자

2018년도 한국YWCA 성평등운동은 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한다. 성차별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과 사회 각 분야의 여성역량 강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성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첫째로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6.7%로 가장 크다. YWCA는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임금의 날 제정운동을 펼쳐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의 노동이 왜 저평가되는지 여성을 둘러싼 노동시장 구조와 생애주기별 노동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왜곡되고 분절화된 여성 노동이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돌봄 사회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된 ‘돌봄’ 노동이 사회구성원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임을 알리며, 나아가 국가 의무규정으로 두어 ‘돌봄’ 노동이 가치 있도록 법 제도 마련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뿌리 깊은 성차별, 끊임없는 발굴과 개선


셋째로 여성폭력 근절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넘어 여성혐오를 종식시키는 캠페인과 시민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신종 여성폭력 범죄로 불리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형태를 바꿔가며 더욱 파괴적이고 교묘하게 작동함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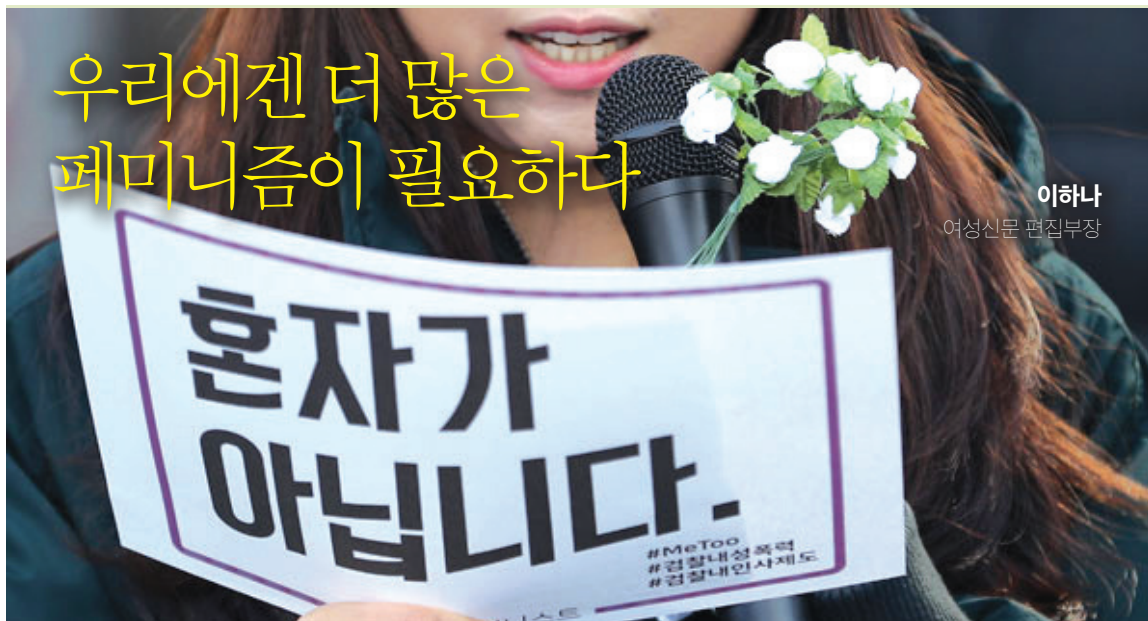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성평등’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과 혐오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기술을 바탕으로 가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1차 피해자는 1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파급력으로 인해 무차별적이고 급속한 확산을 가져온다. 결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국경을 넘어 초국적인 형태로 확대 재생산된다. 이런 신종 여성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도 큰 과제다.

넷째로 일본군 ‘위안부’ 등 전시성폭력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연대 강화와 기후변화·재난·안전 등에 대응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선거와 정책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2018 지방선거 후보의 성평등정책 매니페스토 운동과 성평등 헌법 개정, 정치관련법 제·개정 등 정치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눈과 관점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특별히 YWCA는 ‘젠더 관점의 정책 실현을 위한 지역 후보자 리더십 개발’을 과제로 넣어 YWCA 정책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여성폭력 근절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선거와 정책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가 이뤄지더라도 법, 제도, 관습, 문화, 의식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성차별은 젠더 감수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여성운동은 보이지 않는 차별과 억압을 드러내는 것이다. YWCA 여성운동은 세상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진 여성의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온·오프라인 넘나드는 새로운 페미니즘

온라인에서 불붙기 시작한 페미니즘 열풍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다양한 파열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페미니즘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리고,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간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하는 대통령이 당선됐고 젠더폭력 근절은 국정 핵심 의제로 섰다. 그동안 일상과는 거리가 먼 ‘이즘’ 중 하나로 여겨지던 페미니즘이 실천과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는 신호다.

페미니스트 비평가 손희정씨는 2015년을 전후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의 흐름을 ‘페미니즘 리부트’(Reboot, 재시동)라고 이름 붙였다. ‘리부트’란 기존 시리즈의 연속성은 거부하되, 몇몇 기본 설정 아래 이야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영화 용어다. 2015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촉발된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운동이 본격적인 페미니즘 리부트의 시작을 알렸다.

이렇게 SNS로 연결되기 시작한 여성들은 ‘메갈리아’를 만들어 언어의 전복을 꾀하고 ‘강남역 여성 살해사

건’을 통해 서로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하고 연대하며 ‘서로의 용기’가 됐다. 또한 ‘#OO_내_성폭력’ 운동으로 각자 일터와 조직에서 겪은 성폭력 피해 경험을 집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운동에 참여하고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낸 여성들이 페미니즘 리부트의 주역이다.

SNS에서 일상의 여성혐오를 고발하고 느슨하게 연대하되, 이슈별로 오프라인에서 게릴라식 운동을 펼치는 이들은 ‘넷페미’ 또는 ‘영영페미’라 불린다. 불법 촬영·유포와 여성살해, 낙태죄 폐지, 일회용 생리대 안전 등 여성의제에 사회가 반응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기발하고 기민한 방식의 운동 덕분이었다.

‘대응’하고 ‘행동’하기 시작한 여성들

여성들에게 다가온 페미니즘은 생존 전략에 가깝다. 학교, 직장, 지하철, 길거리 할 것 없이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다. 게임을 하면서조차 여성이라는 사실이 ‘들키면’ 여성혐오 공격을 받는다. 채용 때는 ‘여자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하고, 어렵사리 취직해도 ‘여성의 몫

인 육아와 가사에 허덕이다 사표를 꺼내야 했다. 그런데 이제 ‘자책’하거나 ‘체념’하던 여성들이 ‘대응’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페미니즘을 만나면서부터다. 일상에서 겪은 차별과 폭력에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해 침묵했던 여성들은 마침내 ‘언어’를 되찾았다.

잠재돼 있었지만 이제야 목소리를 내기로 한 여성들의 ‘말하기’는 2018년 한국사회를 바꾸고 있다. 최근 용기 있는 한 검사의 폭로는 은폐돼 왔던 검찰 내 성폭력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때처럼 여성들은 서지현 검사를 향해 ‘나는 너다’라고 공감하며 지지를 보냈고 각자의 위치에서 또 다른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만약 한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세상은 터져버릴 것이다.” 페미니스트 시인 유리엘 루카이지의 이 한 마디는 여성의 말하기가 가진 힘을 설명하는 동시에 여성이 ‘밀실’을 박차고 나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드러낸다. 발화는 두터운 카르텔에 균열을 내고 일상 곳곳의 풍경을 바꿔놓았다. 공기처럼 퍼져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유효한, 그리고 거의 유일한 방법인 ‘말하기’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페미니즘 리부트’는 막 시작했다

아직도 누군가는 “여성 상위시대 아니냐”고 되묻는다. 페미니즘 따위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주장을 나를 돌려 말하는 거다. 그 증거로 내미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사법시험이나 공무원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이다. 성별이 아닌 시험을 통해 실력을 입증하는 전문직에 여성들이 몰려 여성 합격자도 많을 수밖에 없다. 검찰 내에선 ‘여성 검사가 늘면서 남자 검사들이 위축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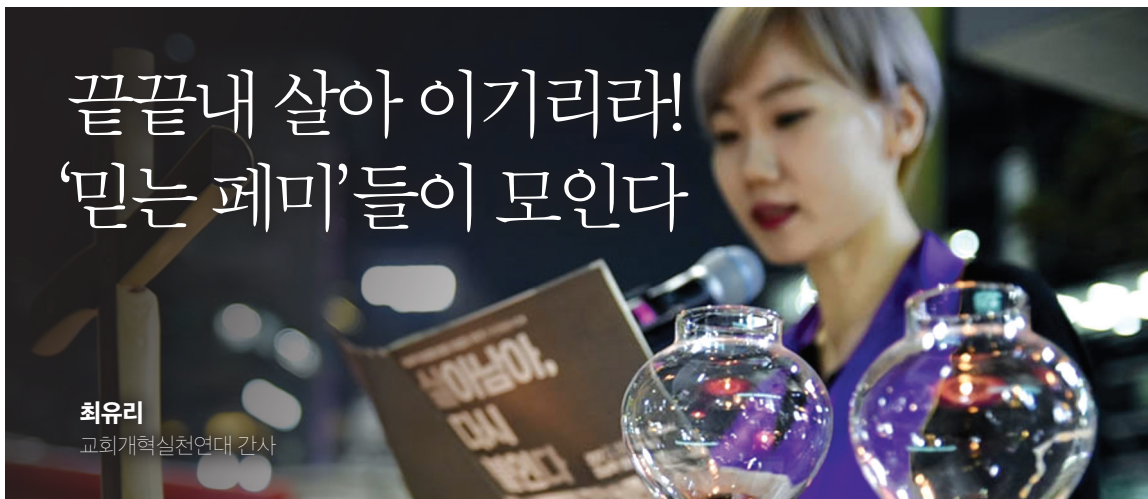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인권단체들은 2월 1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다’는 말이 나온다는 게 현직 검사의 전언이다. 하지만 여성이 너무 많이 진출한다는 검찰 안에서도 여성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됐다.

페미니즘 열풍이 확산되고 여성들이 이를 ‘실천’하는 만큼 페미니즘을 고사시키려는 반격(백래시·Backlash)도 거세다. ‘남성비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 게임 BJ를 살해하겠다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공연히 올린 남성, 그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또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 우리 사회 저출산 원인은 여성의 고학력 때문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발표에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국민청원에 20만명이 참여했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정부. ‘동성혼은 안된다’는 이유를 대며 ‘성평등’이라는 용어 대신 ‘양성평등’을 써야 한다고 보수 기독교단체.

백래시는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다. 강력한 반격에 페미니스트들은 주춤하기도 꺾이기도 한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고 새 살이 다시 돌아나듯 페미니스트들은 더 단단해진다. 수전 팔루디는 <백래시>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은 여성들이 완전한 평등을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커졌을 때 터져 나왔다”고 했다. “여성들이 결승선에 도착하기 한참 전에 여성들을 멈춰 세우는 선제공격”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 여성들이 일으키는 진짜 혁명은 이제부터다. 페미니즘 리부트는 이제 막 시작했다.



'믿는 페미'는 2017년 5월 11일,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희생자 1주기 추모예배 '살아남아, 다시 불린다'를 열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이들의 걸음은 참으로 용기 있다. 참으로 도도하며 그래서 눈물겹기도 하다.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들만 보아도 그렇다. 여성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소리치며 일회용 생리대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임신 중절 이야기를 하면서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며 높은 벽 같은 통념을 깨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재 스멜이 가득한 교회

수십 년간 소리쳐 왔지만 여성 이슈는 지금껏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 줍는다”라는 식으로 늘 묻혔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페미니즘’을 만나 곳곳으로 전달되기 시작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알 것이다. 이런 흐름은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2017년 기독교매체 <뉴스앤조이>에서 일할 당시 수많은 믿는 페미를 만났다.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알려진 단체는 ‘갓페미’와 ‘믿는 페미’ 뿐이지만 ‘페미니즘’과 ‘교회 여성’을 주제로 만난 모든 여성이 믿는 페미였다. 이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교회라는 공간을 논하고 싶다. 그래야 믿는 페미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아름답고 용기 있는 일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교회는 사회보다 더욱 가부장제에 젖어 있는 곳이다. 예시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니는 교회만 보더라도 성 역할이 명백하게 나뉜다. 주방은 여성 권사들만의 공간이고, 주차장은 남성 장로 또는 집사들의 활동 구역이다. 너무나 진부하지만 어느 교회에서나 통하는 예시이기도 하다. 봉사 영역만 나뉘어 있는 건 아니다. 교회 내 구성원 다수는 여성이지만, 이들은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는 물론 발언권, 선택권을 갖기도 힘들다. 여성 장로는 물론 여성 목사가 없는 곳도 있을 수 있다. 교회 정치에 대한 파이는 오직 남성들만이 독점한다. A교단 총회에 가면 회의장에 아재 스멜 나는 나이 많은 남성들만 득실댄다. 여성은 회의장 밖을 서성거리는 남성들을 위해 커피를 준비한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닌 보조자 역할만을 담당한다.

교회 여성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런 황량한 사막 같은 교회에서 페미니즘이란 꽃이 피고 있다. 내가 만난 ‘갓페미’는 서울 IVF(한국기독교 학생회)에서 사역하는 세 여성 간사가 진행한 행사 이름이다. 단체 수련회에서 명성 있던 목사가 설교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했



'갓페미'는 2017년 4월 8일, 교회 내 여성혐오와 여성리더십 등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찾는 '여성의 날 LGM'을 열었고, '교회내성폭력OUT공동행동'은 9월 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앞에서 문대식 목사 면직과 교회 내 성폭력 OUT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왼쪽부터)




다. 학생들 몇 명이 문제를 제기했고, 목사는 사과했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세 간사는 학생들이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경험한 성차별적 문화와 설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을 기획하게 됐다.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고(궁금한 분은 뉴스앤조이에서 ‘갓페미’를 검색하길 바란다) 주제별로 정리돼 전국 IVF에 책자로 배포됐다.

또 한 곳은 ‘믿는페미’다. ‘믿는페미’는 기독교 NGO 단체에 있던 여성 간사 셋이 만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회 약자에는 애통해하지만, 여성에게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동료들을 보면서 페미니즘 모임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노브라’라는 아주 도발적인 책모임을 열어 페미니즘 책, 여성신학 책을 읽고 있다. 나도 이 모임에 참여해 한 달간 때 묻은 그림자를 벗기고 새로운 빛을 받아서 온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힘과 위로를 받는다. 이들은 때때로 교회 여성을 주제로 한 팟캐스트 방송도 하고, 2017년에는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예배도 기획했다.

곳곳이 살아남은 ‘믿는 페미’들에게

두 모임에 고맙고 감사하지만, 사실 나처럼 교회 안에서 조직화되진 않았지만 혼자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믿는 페미들에게 더 마음이 간다.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깊은 지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다. 목회자인 남편을 만나 사모 역할을 요구받지만, 곳곳이 자기 사역하는 A씨, 신학교에서 빵을 소리를 듣고 항의하자 “센 캐릭터는 인기 없다”는 더 빵을 소리를 들은 B씨, 교회 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는 C씨. 각자 상황에서 어떤 때는 치받으면서, 어떤 때는 사랑이 없다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떤 때는 저들의 태도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반응을 들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믿는 페미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 존재한다.

글을 마치며 이들의 행동과 조직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획을 긋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아직 교회는 페미니즘과 거리가 멀다. 고작 몇 명이 말한다고 해서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두가 평등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꼴페미”, “페미니치” 등의 단어를 써서 비아냥대기 바쁘다. 악착같이 가부장적인 교회를 지켜낸다. 그럼에도 희망하고 싶다. 어느 누군가는 믿는 페미들의 목소리에 연대의 손을 잡고, 교회가 상식적인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외칠 날이 곧 올 것을. 우리의 작은 목소리와 행동이 해방의 교회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해일 오는데 조개 줍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나중에 수치를 당하고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끝끝내 살아 이길 때까지 말이다. 

혐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시작한다

여성혐오, 동성애, 인공유산 논쟁에 대하여



강남순 교수가 YWCA 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혐오 시대 쟁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 강의하고 있다.

2017년 12월 26일(화)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기독교여성들은 여성혐오 시대의 쟁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남순 미국 텍사스크리스천대학교 브라이트신학대학원 교수의 YWCA 활동가 특별강연이 열렸다. 강의내용을 요약해 실는다.

'피해자'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자

여성은 백인이거나 흑인이거나 동양인,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성소수자일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모습이다. 사회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구조로만 획일화돼 있지 않다. 백인여자가 흑인남성을 지배하거나,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억압하는 등 다양하다. 복잡한 세상을 한 가지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세상의 복합적인 억압과 지배, 종속 개념을 드러내기 위해 'Kyriarchy'(주인중심제) 개념을 사용하여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을 해야 하며, 다층적 '위치성

(Locationality)'을 갖고 봐야 한다.

미국 신학대학원에 있는 성소수자를 예로 들어보자. 이들을 미시적 관점으로 보면 '희생자'다. 그러나 거시적으로는 '백인, 남자, 석사·박사'로서 교육구조에서 특권층이며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즉 '지리적·정치적 권력'을 가지며, 종교지도자로 살아갈 사람들도 있다. 성소수자라고 해서 피해자로만 볼 수 없다.

여성혐오를 반대하는 SNS 글을 보면 여성으로서 피해자 의식을 절대화해서 마치 세상에는 남녀만 존재하는 것

처럼 보는 페미니스트 그룹, 극단적 언어를 사용하는 이론가들이 많다. 그런데 이들이 이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건 '교육받은 사람들'이며 대학 교수라든지 다양한 특권적 위치를 가졌기에 가능하다. '이성애자'라는 특권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피해자 의식 한 측면만을 전선에 내세우는 것은 다양한 피해구조를 보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 피해자 의식만으로 평생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있다. 페미니즘운동이 피해자 의식으로만 점철된다면 증오만 남는다. '배울 거 다 배워놓고 세상에 돌도 없는 피해자처럼 저러느냐' 맞는 말을 해도 설득력을 갖기 힘들고 운동은 지속되기 어렵다.

'혐오'의 이분법적 사고방식

혐오에는 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존재한다. '남성 대 여성', '백인 대 비백인', '이성애 대 성소수자', '비장애인 대 장애인', '서구 대 비서구' 끊임없이 두 가지 축을 만든다. 한 쪽은 우월하고 반대는 열등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다. 흑이 아니면 백이듯, 이성애가 옳다면 다른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종교 대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기독교는 예술, 철학, 과학 등 서구문명을 토대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이런 기독교 세계에서 성서는 절대적이다. 성서의 결혼, 남녀관계는 진리가 되고 다양한 혐오적 텍스트는 지식이 되었다. 그러나 성서에서 말하는 가족제도, 성성(sexuality)은 다양하다. 일부다처제, 강간한 가해자와 결혼해야만 하는 여자, 월경 중인 여자는 불결하고, 아버지는 부인과 딸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서 다른 남자에게 내줄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런 게 정상적인 성서적 관계로 보이는가? 성서가 한 획이라도 틀림없다고 단언하며 동성애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심지어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한다. 사실 동성애 개념은 19세기 계몽주의시대 이후 등장했다. 성서가 쓰일 때 동성애 개념조차 없었다. 레위기의 소돔과 고모라에는 소위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등의 이야기가 없다.

인간의 성성(sexuality)은 기독교 안에서 터부시되어 왔다. 4-5세기 성관계는 인류보전을 위한 수단으로써 부관계에서 쾌락을 느끼면 고해성사를 했다. 어떤 시기엔 자위행위를 죄로 정하기도 했다. 일부다처제가 당연한 때도 있었다. 성서 안에는 다양한 한계와 시대적, 개인적 편견이 담겨 있다. 성서가 경전화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포함시킬지 싸움이 있었다. 과거 마리아복음, 도마복음이 있었지만 현재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고백하지만, 성서는 실제 남성들이 쓴 것이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여성과 성소수자들의 몸은 생물학적인 몸이 아니라 '권력이 행사되는 자리'였고 지금도 그렇다. 인공유산도 마찬가지다. 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국가가 개입하는가? 인공유산을 두고 '자기 결정권', '태아생명권' 두 진영이 대립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 대치된다는 주장은 인공유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보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

미혼모를 향한 다양한 차별과 편견이 팽배한데, 그 문제는 덮어두고 여성에게 인공유산하지 말라는 것은 여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군대제도와 무기매매에 대해선 아무 말 없다가 여건이 어려운 여성이 인공유산을 하려니 낙태죄라고 한다. 임신시킨 남자들은 어디로 갔는가? 성소수자, 인공유산의 문제 뒤에는 가부장제 구조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타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으로 성서를 사용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낫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자'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말하지 않는다. 누가 이웃인가, 사랑은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 지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사랑은 낭만화 되어 있다. 크리스천은 예수가 타자에게 가졌던 연민의 시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연민'(passion)에는 수난이라는 뜻도 있다. 타자의 고통에 함께하는 연민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성소수자, 인공유산을 하는 여성도 이웃으로 만들 것인가? 

청소년은 보호하고 성매수자를 처벌하라

글 천유란 Y-틴위원회 간사
사진 김수진 대학·청년위원회 간사

“Here I am, 우리가 국회에 갔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추구를 위한 오프라인 정치행동

일시 2018년 2월 8일 (목) 14시-17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




성매수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고발을 가로막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을 위한 프로젝트 “Here I am”이 온라인 캠페인에 이어 오프라인 행동에 나섰다. 온라인 캠페인 참여단체와 심대여성인권센터, 닷페이스 등은 2월 8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Here I am, 우리가 국회에 갔다” 간담회를 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아청법 개정추구 의견을 전달했다. 연합회와 전국 52개 회원YWCA는 “Here I am”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향숙 Y-틴 위원, 이서영 Y-틴 전국협의회 전 회장, 김예은 서울YWCA Y-틴 회원 등이 참석했다.

‘앱’ 하나로 성매매를 하는 나라

지난해 12월 19일(화)부터 1월 21일(일)까지 한 달간 전개된 온라인 캠페인 “Here I am” 프로젝트는 아청법 개정 추구를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과 배포, 서명운동, 피해자 지원 모금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아청법에 성매수 범죄 피해자를 피해자로 명시해 그동안 피해상황을 알리지 못했던 아동·청소년들이 ‘내가 여기 있어요’라고 외칠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Here I am”으로 이름 지었다.

심대여성인권센터와 닷페이스는 채팅 앱(어플리케이션)

으로 10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들을 직접 인터뷰한 영상을 만들어 화제를 모았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조명한 이번 영상은 게시 1주일 만에 130만 넘게 조회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들에게 유인된 10대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아청법 독소조항 ‘제2조 7항’을 삭제하자는 “Here I am”을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10대 성매매 피해여성을 후원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과 개정추구 서명운동도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이서영 Y-틴 전국협의회 전 회장이 2월 8일 “Here I am, 우리가 국회에 갔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재 아청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혹은 ‘피해’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외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의 경우 청소년 의사와 무관하게 성구매자 또는 알선자를 처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와 착취’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을 사는 구매’가 범죄

한국YWCA Y-틴 청소년들은 지난해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청소년 인권과 가장 밀접한 참정권, 노동권, 환경권, 성인권(性人權)을 침해하는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성매매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이 성착취를 당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서영 Y-틴 전국협의회 전 회장은 국회 간담회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청소년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성을 사고파는 게 그렇게 단순한지 알아보기 위해 랜덤채팅 앱을 깔아봤는데 앱을 다운받자마자 성인 남성들이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나쁜 일에 휘말



YWCA 등 시민단체는 2016년 10월 11일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앱 운영자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릴 것 같아서 5분도 안돼 앱을 지울 정도였습니다. 앱 하나로 성매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성을 돈 주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피해 청소년을 범죄자로 만드는 보호처분 규정을 없애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앱을 규제해서 청소년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YWCA는 성폭력 추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16년 255개 여성·시민단체들과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앱 운영자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지난 12월엔 Y-틴위원회 김영자, 이경옥, 정혜련, 최향숙 위원을 주축으로 청소년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아청법 개정은 청소년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걸음일 뿐이다. 청소년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창구를 하나씩 막고, 청소년 성착취뿐만 아니라 성구매자를 위축시켜야 한다. 자발과 비자발이라는 프레임으로 청소년에게 성착취 문제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느 범죄처럼 가해자의 범죄에 초점을 뒀야 한다. 처벌과 통제는 ‘성을 파는 청소년’이 아닌 ‘성을 사는 구매자’가 받아야 한다. ‘성매매’라는 용어도 바로잡아 ‘성착취’, ‘성적 학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청소년이 성착취로부터 벗어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옛된 소녀들의 수형자 카드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전시관에 가면 벽면 전체가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 수형자 카드로 채워진 방이 있다. 바짝 마르고 헝클어진 머리에 눈빛만 형형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새 먹먹해져서 한자로 휘갈겨 기록된 이름 하나하나를 더듬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부자도 아니고 권세 높은 이도 아니고 그저 보통의 농민이고 학생이고 상인이던 그 무수한 이름들.

그 가운데서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너무나 어린 소녀들의 모습이 기록된 수형자 카드다. 옛되지만 당찬 얼굴, 마르고 곱먹은 얼굴, 툭툭 붓고 일그러진 소녀들의 얼굴은 벽면을 가득 메운 독립운동가들의 수형카드 속에서 더 도드라지게 가슴 속에 각인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일제강점기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판결문과 수형기록 카드를 정리해 발간한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편'>에 따르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여성독립운동가의 수형기록 카드는 모두 180명이고, 3.1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독립운동가는 33명이라고 한다. 그중 대다수가 이화여고, 정신여고, 배화여고, 숙명여고 등 여학교 학생들이다.

어린 몸으로 민족의 독립과 평등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온 이들, 서대문형무소에서 온갖 고문과 모진 시련

을 감당해낸 이들은 분명 유관순 열사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3.1운동의 상징이자 '민족의 누이'로 호명된 열사 유관순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아도 3.1운동의 당당한 주체였던 그 수많은 여성들, 특히 유관순 열사 또래의 어린 여학생들의 존재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자주독립 만세를 외치며 전국 방방곡곡 거리로 뛰쳐나온 그 당당하고 결기에 찬 여학생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어린 여성들의 역할이 가장 눈에 띄었다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편'>의 당시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3.1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다양한 지역과 계층 출신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연령대에서 1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영국 저널 리스트로서 3.1운동 당시를 취재해 <한국의 독립운동>이라는 책을 펴낸 프레데릭 맥킨지는 3.1운동의 특이한 점으로 전에 없던 '여성의 주체적 역할'을 꼽았고, 그중에서도 어린 여성들의 역할이 가장 눈에 띄었다고 썼다.

3.1운동은 식민통치에 신음하던 아시아, 아프리카 각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인도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자와할랄 네루가 투옥되었을 때 16살 딸 인디라 간디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 소녀들의 독립운동에 대해



어린 여성을 포함한 수많은 여성들의 독립운동은 아직도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썼다.

“일본의 한일합방 통치는 인류역사에서 가장 참담하고 비통한 것인데, 그 코리아에서 어린 여학생들이 항일민족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네가 알면 너도 마음이 끌릴 것으로 안다.”

실제 3.1운동 당시 신문 기사들은 '여학생이 시작했다', '여성들의 소요', '여학생의 음모' 등의 제목을 단 것이 많았다. 이처럼 여학생들은 유관순 열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3.1운동 주역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다했다. 맥킨지의 말대로 공적인 장소나 저잣거리에서 좀처럼 볼 수 없던 여성들이 3.1운동을 위해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 중심에 여학생들이 있었다.

잊혀진 3.1운동의 '여학생' 주체 회복하기


여학생들이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로써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기독교적 근대교육을 받았던 사실을 꼽고 있다. 이들은 학교와 교회에서 황국신민을 강요하는 일제 교육정책이나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낡은 여성상에 반하여 남녀는 동등하다는 사회적인 각성을 하게 되었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강렬히 추구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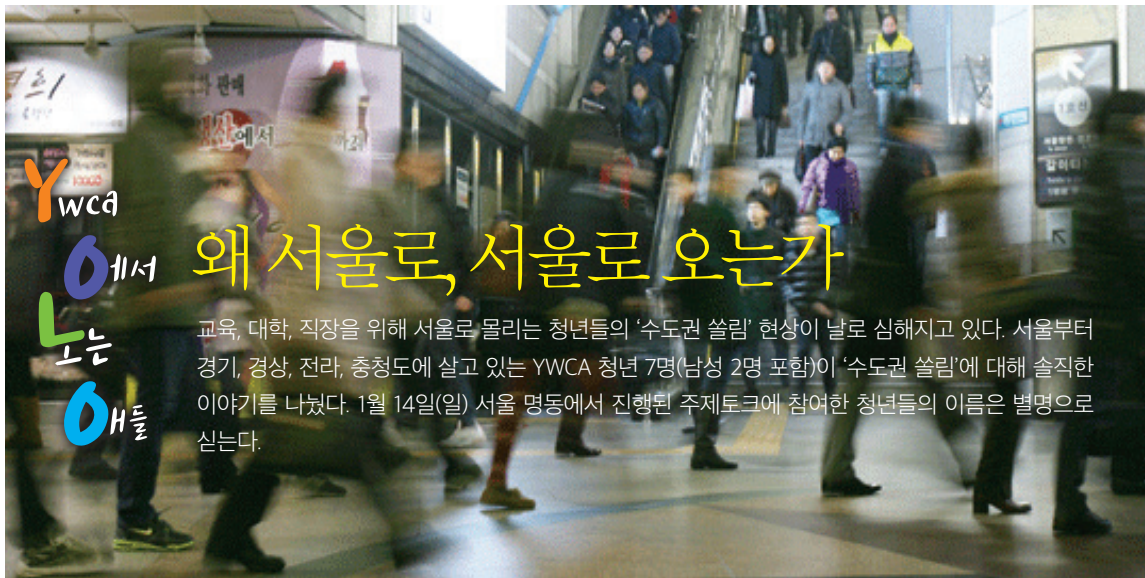
이것은 젊은 여성들이 3.1운동에 나서는 큰 동력이 되었고, 이들의 남녀평등 인권사상은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남녀동등권을 명문화 하는 실질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뿐 아니라 다른 서구 나라들보다 앞서 1948년 제헌의

회 구성을 위한 역사상 첫 선거 때 여성투표권 부여로 나타났다. 또한 3.1운동 당시 여학생으로 대표되는 젊은 여성들의 활약은 이후 여성해방과 민족독립을 추구하는 수많은 조직의 건설로 이어진다. YWCA 창립이 대표적인 사례다.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이 된다. 100년이 지났지만 3.1독립운동이 표방한 자주와 독립, 자유와 평화의 가치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더 발전시키고 확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100년 전 이 땅의 젊은 여성들은 해방과 평등의 정신으로 일제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떨쳐 일어났고 그 이후로도 즐기치게 싸워왔지만, 그 역사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철학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친구 맥카시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인간의 삶의 경험이란 그 경험이 말해질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지. 말해질 때만 그 경험은 존재하는 것이며, 말해지지 않을 때 그것은 존재하지 않아. 삶이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쓰이지 않을 때 그 이야기들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 그런데 무엇이 이 이야기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일까.”

3.1운동의 주체였던 젊은 여성들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해야 할까. 서대문형무소 여학생 수형자 카드 속의 그 강렬한 눈빛과 절절한 몸짓, 살아있는 정신을 치열하게 되살려내야 할 과제가 오늘날 여성혐오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엄중하게 놓여 있다. 



서울에 대한 환상

콩이 청년들은 왜 서울로 모일까?

김밥 서울은 재미있잖아. 우리 지역에는 20대가 즐길 수 있는 놀거리가 없어.

하니 좋은 전시회나 콘서트, 특강이 수도권 위주로 열리니까 지역 청년들은 목마름이 있어.

당근 임금도 서울이 훨씬 더 높아.

배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와보니 교육 면에서 차이를 많이 느껴.

니키 내가 보기엔 20·30대는 서울을 무조건 좋아하는 것 같아.

하니 꼭 그렇지만은 않아. 나는 광역시에 살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을 못 느껴.

배추 나는 서울이 좋아. 더 나은 삶을 상상하는 지식인들이 모여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곳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

콩이 사회구조 차이도 있다고 생각해.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짜여 있으니 지역에는 일꾼들이 설 자리가 없어. 지역에 있고 싶어도 떠날 수밖에 없지.

김밥 미디어가 서울 중심으로 문화를 만들다보니 지역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동시에 서울에 대한 환상으로 서울을 갈망하는 것 같아.

지역엔 청년 일자리가 없다

하니 지역에서 성공한 선배와 롤 모델이 없어서 떠나는 것은 아닐까.

니키 결론은 일자리야. 일자리가 있으면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모일 것 같은데?

배추 지역특색에 맞춰 일자리나 정책이 생겨야 하는데 단일 정책을 모든 지역에 적용하니 망하는 거 같아.

하니 지역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어. 정책이든 뭐든 지역 특색을 살리는 게 아니라 '서울 따라 하기' 방향으로 가고 있어.

니키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도 상관 있어. 투표를 안 하니까 후보들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지 않아.

배추 몇몇 나라나 지역에는 대안공동체가 성공한 사례가 있기도 해. 근데 우리나라 특히 경상도 지역에



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듯해. '레드 콤플렉스'처럼 말야.

김밥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은 빨갱이 취급 받을까 걱정돼서 변화에 나서지 않는 것 같아.

하니 청년들이 교육을 위해 떠나는 것 같아. 교육을 통해 가치관과 사고가 생기는데 서울과 지역의 교육수준이 다르니까 청소년 시기까지는 괜찮은데 청년이 되면 생각하는 수준에 차이가 날 정도야.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김밥 지역을 위해 청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청년들이 왜 떠나는지 논의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당근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자리'만 이야기하는 정책, 제도가 많아. 일자리 정책도 창업, 공대 쪽으로만 몰려 있어.

배추 지역 의원을 뽑을 때 '청년 할당제'를 뒤서 정책 결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아무리 많은 청년 네트워크를 한다고 해도 결국 기득권을 가진 어른들이 마음대로 할 텐데 청년들이 참여할까?

조조 본인이 태어난 도시에서 그대로 살고 그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도 맞지만, 다양한 이유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되면 그 곳을 더 생각하는 것도 필요해. **콩이** 고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터를 잡는 곳 자체가 내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 **당근** 맞아. '고향주의'를 벗어나야 지역감정도 없어지지. **하니** 요즘 청년세대에 고향이 있을까? 내가 태어난 산부인과가 있는 곳이야, 학창시절을 보낸 곳이야, 아니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야? 기성세대의 고향이 청년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

상상력이 필요해

하니 청년들은 정부에만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데 같이 노력해야 해. 청년과 정부가 소통이 없으니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니키 지역을 살리고 싶다고 느끼는 곳에서 청년들이 함께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

배추 남이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해. 동시에 상상력을 더 키우기 위해 다른 지역과 대안공동체 사례를 많이 배우고 끊임없이 연구해야지.

하니 많은 경험을 하면서 계속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상상을 해야 해.

조조 '소설픽션(Social Fiction)'이라는 말도 있잖아. 수십 년 뒤 꿈꾸는 사회를 상상하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거야.

김밥 함께 할 사람 2~3명만 있어도 힘이 난다잖아. YWCA도 창립자가 세 분이고.(웃음)

당근 우리도 '소설픽션 컨퍼런스' 열어보자.

모두 좋아! 재밌겠다.

배추 청년네트워크를 지원할 때 1인당 시급 1만원씩 '상상지원금'을 주면 잘 될 것 같지 않아?

당근 그럼 청년들이 너도나도 모여서 이야기하고 상상하고, 변화를 직접 겪으면서 사회를 위해 움직이게 되지.



대학·청년Y 회원들이 총회에서 거수표를 들고 있다.

재건 3년차를 맞은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가 1월 4일(목)부터 1월 6일(토)까지 YWCA 버들캠프장에서 2018년도 총회를 열었다. 대학·청년Y 회원 40명과 실무자 13명 등 53명이 참석했다. 올해 대학·청년Y 전국운동 주제는 2017년에 이어 '청년과 지역사회'를 계속 펼치기로 했다. 임원구조는 기존 회장, 총무 2인체제에서 회장, 기획국장, 소통국장의 3인체제로 바뀐다. 신임 임원들의 다짐을 통해 대학·청년Y가 모색하는 청년운동의 방향을 살펴본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년운동

손지수(대구YWCA)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회장
재건이 청년들의 힘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 대학·청년Y 운동성이 약한 큰 이유입니다. 2016년 재건 후 2년간은 목적과 틀을 잡는 기간이었다면 2018년은 조직적으로 YWCA 청년운동 방향을 잡고 활동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젠 '남들이 해주겠지, 어른들이 해주겠지' 라는 마음은 접고 청년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나누고, 행동해야 합니다. 청년이 삶의 주체로서는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대학·청년Y의 장점을 살려 지역에 맞는 청년운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자기의 삶은 자기가 만들어가듯 청년활동 역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학·청년Y는 다른 청년조직과 다르게 조직구조상 선배 세대의 지지와 후원 안에 있습니다.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는 이 구조를 잘 활용해 청년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청년을 약자로 인정해주고,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YWCA야말로 청년들이 위로받으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보

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모인 대학·청년Y는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청년 리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약자인 나의 친구들을 위해, 소수자들을 위해 목소리 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갖고 활동하는 다른 청년단체와 달리 YWCA는 다양한 지역의 공동체, 운동 주제, 세대들이 함께 운동할 수 있다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살려 청년성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꾸준하게, 묵묵하게

김예지(서울YWCA)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기획국장
최근 세계적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급부상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은 페미니즘의 과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YWCA의 본질이 여성단체인 만큼 올해도 여성인권운동에 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끊임 없이 일어나는 분쟁으로 많은 난민이 생겼습니다. 난민과 이주자 인권에 대한 운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YWCA의 기독교성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기독교성에 바탕한 YWCA에 참여하는 기독교청년들 규모가 줄고 있



2018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총회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심을 가진 청년들이 대학·청년Y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YWCA만의 청년운동은 '묵묵함'입니다. 지난 95년간 YWCA는 사회의 격변 속에서도 묵묵히 여성과 약자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YWCA 청년들 역시 바쁜 삶속에서 다양한 활동과 인권운동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촛불시위를 주최하거나 다양한 정책과 법제·개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NGO도 있지만 YWCA는 여태껏 꾸준히, 묵묵히 활동하며 여성권익을 증진시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대학·청년Y는 주변의 이웃을 둘러보고, 함께 협력하여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청년운동을 해나가길 바라며 저도 그 청년운동에 힘을 싣고자 합니다.

청년 예수처럼

이보람(안산YWCA)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소통국장
요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단체에서 청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WCA는

이름 그대로 회원운동체입니다. 활동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을수록 YWCA가 추진하는 운동이 지체되고 힘을 잃게 됩니다.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배경이 어떠한지 철

저하게 고민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 청년을 위한, 청년의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YWCA 외부 단체를 조사, 연구, 분석하여 YWCA 사정에 맞게 반영하고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지역사회 더불어 풀어가세'라는 전국운동 주제에 따라 2017년 한해 동안 YWCA 청년들이 이웃지역과 협력하며 지역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YWCA만의 청년운동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2개 회원YWCA라는 탄탄한 조직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비록 지역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지역성을 잘 활용하고 청년운동에 반영해 우리만의 운동주체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YWCA만의 청년운동은 'YWCA 목적문'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청년정신,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와 함께했던 가르침에 따라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2018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중앙임원

전국협의회 회장	손지수(대구YWCA)	북부지역 대표	구광모(수원YWCA)
기획국장	김예지(서울YWCA)	중부지역 대표	서형원(청주YWCA)
소통국장	이보람(안산YWCA)	서부지역 대표	박성연(여수YWCA)
		동부지역 대표	차민규(거제YWCA)

2018년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이보람 소통국장, 김예지 기획국장, 손지수 회장(왼쪽부터)이 당선소감을 말하고 있다.





글·사진 문윤희 홍보출판팀 간사

1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2박3일간 YWCA 버들캠프장에서 2018년 Y-틴 전국협의회 총회가 열렸다. 21개 회원YWCA Y-틴 회원 88명과 17개 회원YWCA와 연합회 실무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활동을 평가하고 2018년 중점운동 주제와 활동계획을 정했다.

청소년 차별에 목소리를 내다

YWCA 버들캠프장이 청소년들로 시끌벅적하다. 추운 날씨에 종종거리며 전국 각지에서 Y-틴이 모였다. 어른들은 ‘애들이 뭘 알아?’라고 쉽게 말한다. 그러나 Y-틴 전국협의회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뭘 알아도 더 잘 알았다. 이번 총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Y-틴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다. 첫날 청소년 인권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토크콘서트 ‘톡! 투! Y-틴’이 열렸다. 판넬 ‘Y에게 묻습니다’를 상시 설치해 학교 교칙에 대한 참가자들의 불만을 모았고, 그들에게 직접 들은 고민을 10대, 20대, 50대 패널들과 나눴다.

청소년들은 ‘따뜻하지도 않은데 불편한 교복 재킷을 입지 않으면 외투를 못 입게 한다’거나 ‘등교할 때 여학생은 머리를 묶어야 하는’ 교칙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면 학교 명예가 떨어진다’는 꾸중을 들었다는 10대 패널은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지 학교 명예를 위해 학생이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곳곳에서 “웁소!” 외침이 쏟아졌다.

충격적인 이야기도 나왔다. 여학생들에게 ‘암캐들’이라고 하거나 화장한 학생에게 ‘술집 여자 같다’고 비난한 교사도 있었고, ‘생리하는 거 못 믿겠으니 화장실에

데려가서 생리대를 펼쳐보게 했던’ 기막힌 경험도 있었다. 학생들이 회장단을 뽑지 않고 교사가 선택한 후보자를 공개투표로 찬반을 받아 선출한 일도 있었다. 참가자들은 분노하거나 때론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20대, 50대 패널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놀라워했다. TV에 나오는 청소년 연예인들은 머리 염색과 파마, 화장을 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학교 청소년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이중적인 잣대라는 지적도 있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며 이득 보는 사람들은 어른인 점도 이중적이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겪는 차별도 다양했다. 초과수당을 주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사장이 ‘손!’이라 말하면 손을 쥐야 했고, 손을 쓰다듬는다거나 ‘어린 애들은 돈 많은 남자 좋아하는데, 너나 좋아하는 거 아니지?’라며 휴대폰을 뺏어 본인 사진을 찍어 놓는 어른도 있었다. Y-틴은 사회에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차별에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이 직면한 당사자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토론했다.

4부지역 활동보고도 남달랐다. Y-틴이 직접 대본을 만들어 연습한 뮤지컬과 연극, 노래, CF패러디 등 유쾌한 방식으로 한해 활동내용을 발표했다. 각 지역활동을



토크콘서트 ‘톡! 투! Y-틴’에서 10대 패널이 이야기하고 있다(위 왼쪽). Y-틴 동부지역협의회가 활동 보고를 하는 모습(위 오른쪽). Y-틴 전국협의회 총회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아래).

보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마음껏 재주를 펼쳤다. 쑥스러워 하거나 실수하는 친구에게는 “괜찮다”고 격려했다. 지치지 않는 Y-틴이었다. 쉬는 시간에도 음악을 틀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불렀다.


청소년은 이미 시민이다

둘째 날에는 올바른 역사인식, 탈핵, 청소년 자살예방, 안전한 먹거리,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Y-틴 중앙임원들이 부스를 열어 YWCA 운동을 소개했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12.28 한일합의의 부당함을 이야기했고, 핵발전소 피해사례와 위험성을 살펴보고 신재생에너지를 배웠다. 생활에서 탈핵을 실천

하는 방법도 고민했다.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위험성도 다뤘다. 청소년 자살 국내외 사례와 통계자료를 보며 심각성을 일깨웠다.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 호신술과 호신용품 사용법을 배우고 실습하기도 했다. Y-틴은 성매수 피해 십대여성을 보호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서명운동에도 동참했다.

올해 운동주제를 논의할 때는 열린 토론이 펼쳐졌다. 2018년도 중점운동 주제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슬로건으로 ‘지나간 발자

취는 미래의 발걸음이 된다’를 선정했다. 전국협의회 회장 선출 현장도 뜨거웠다. 세 번의 투표를 거쳐 Y-틴 전국협의회 회장은 서지수(전주YWCA), 총무는 이태인(대구YWCA) 회원이 뽑혔다.

한 참가자는 “Y-틴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되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Y-틴은 단순한 과외활동이 아닌 바른 시민을 키우는 또 다른 학교였다. Y-틴은 어리지 않았다. 몸만 자라는 청소년기가 아니라 스스로 시민의식을 성장시키고 있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춘 청소년 ‘시민’을 편견 없이 바라봐야 청소년이 주체로 서는 YWCA가 될 것이다. 

2018년도 Y-틴 전국협의회 임원

- 전국협의회 회장 서지수(전주YWCA) · 총무 이태인(대구YWCA)
- 북부지역 회장 김서현(안양YWCA) · 총무 김예은(서울YWCA)
- 중부지역 회장 홍시원(대전YWCA) · 총무 육예진(충주YWCA)
- 서부지역 회장 홍다은(순천YWCA) · 총무 하지민(전주YWCA)
- 동부지역 회장 양다희(마산YWCA) · 총무 서정민(진주YWCA)





강보경 서울YWCA 간사가 김필레 선생과 YWCA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가 주최하고 김필레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2017 김필레리더십캠프'가 연합회 강당과 버들캠프장에서 열렸다. 정신여자중학교 학생 26명이 참여한 캠프는 12월 18일(월)부터 19일(화)까지, 정신여자고등학교 학생 24명이 참여한 캠프는 12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각각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정신여중·고 동문이자 교사였으며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YWCA 설립자 김필레 선생의 기독교정신과 봉사정신을 배우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성리더십을 고민했다.


김필레는 누구인가

한국YWCA 창설자 김필레(1922~1983) 선생은 근대화 초기 여성운동의 선구자이자 여성교육에 일생을 바친 교육자였다. 남성중심의 가부장 사회인 구한말에 태어나 1908년 대한제국 최초의 국비 여성 유학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공부한 1세대 신여성이다.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를 온몸으로 겪은 그에게 교육은 현재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자주독립에 이르는 지름길이었다. 김필순, 김마리아, 김규식, 김순애 등 가족 대부분이 독립운동에 뛰어든 애국열사 가문에서 자란 김필레에게 여성인권과 조국해방을 위한 여성교육은 시대적 숙명이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김필레는 기독교 진리와 소명의식에 바탕한 교육의 길을 개척했다.

특히 배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

로 이중삼중의 차별을 받던 지역 여성들에게 주목한 그는 1920년 광주여자야학의 학장으로 나이와 빈부를 불문하고 여성들을 교육의 장으로 불러냈다. 일본 유학 시절 경험한 YWCA 활동의 영향을 받아 1922년 조선 YWCA, 광주YWCA 창설을 주도했다. 이후 미국 유학 길에 올라 석사·박사학위를 수료했다. 귀국 후 광주 수피아여중 교장을 거쳐 모교인 정신여학교 교장을 역임했으며, 서울여자대학교 설립에 앞장섰다.

민족과 조국을 떠난 교육은 있을 수 없고, 배운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지식은 실행에 옮겨졌을 때만 참다운 지식이 된다는 사상으로 학교교육만이 아닌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기독교교육, 평등교육, 성교육, 민족자립교육을 평생 실천에 옮겼다. 1972년 YWCA 설립으로 여성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해질 수 있도록 권혜상(정신여자중학교 2학년 5반)



정신여자중학교 참가자들

김필레 선생님의 일생을 담은 전기와 다큐멘터리를 보고 느낀 바가 많다. 학교에서 추모예배를 하고 교육받을 때는 가깝게 와 닿지 않았는데 이번에 선생님의 업적과 여성인권, 기독교 전파를 위한 노력을 자세히 알게 돼 우리 학교에 대한 자긍심도 생겼다. 가장 인상 깊은 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비 유학생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조

선은 가부장적인 유교사회로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조차 없었다. 그런 시대에 혼자 유학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일본 도쿄에 가서도 조선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떳떳하게 학생 본분에 맞게 생활한 선생님이 존경스럽다.

요즘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는 페미니즘이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500년간 이어져온 유교사상이 남아 있어 남성중심적인 면이 많다. OECD 국가 중 남녀소득 불균형이 가장 높고, 임금격차는 37%나 된다.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페미니즘은 김필레 선생님이 실천한 여성인권운동과 같은 맥락에 있다. 간혹 페미니즘을 남성혐오, 유난 떠는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인권 신장을 통해 평등을 추구하고자 노력한 학문이다. 대한민국의 학생이자 여성으로서 여성의 권리가 남성과 동등해질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김필레 선생이라면 어떤 일을 했을까

문화 속 여성혐오 공론화 우성경(정신여자고등학교 1학년 3반)

여성이 당하고 있는 임금차별 같은 보편적인 여성혐오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이야기하셨을 것 같다. 특히 문화 속 여성혐오를 공론화 하는데 힘쓰셨을 것이다. 문화는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들에게 가장 쉽고 빠르게 영향을 주는 영화나 인터넷 방송들은 예로 들 수 있다. 남자 배우들이 물려서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만 여성들이 주가 되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여성을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다. 여성을 늘 지켜주어야 하고, 민폐를 끼치고,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제압당하는 캐릭터로 보여준다. 드라마에서는 여고생과 아저씨의 사랑 이야기가 인기를 얻는다. 예능 방송의 경우 걸그룹의 춤을 보이그룹이 희화화하여 표현하고, 패널들은 여혐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이런 문화가 과연 건강한 문화일까?



정신여자고등학교 참가자들

김필레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교육에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고 여성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 같다. 학교를 다니거나 배움을 얻는 것에 누구하나 배제되지 않도록 여러 제도를 만드셨을 것이다. 또한 과거 여성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가족을 위해 배움을 포기해야 했던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시금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셨을 것이다. 



목포YWCA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돌봄노동 여성들의 쉼과 소통을 위한 공간인 '플랫폼'을 지난해 11월 17일(금) 개소했다. 돌봄회원들의 전용공간이 생긴 것은 YWCA에서는 처음이다.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의 후원으로 회관 상담실을 리모델링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살림돌보미, 아이돌보미 등 돌봄회원은 물론이고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등 지역 여성들의 소통공간으로 사용된다.

YWCA에서 회원들의 전용공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청주YWCA는 2017년 3월 대학·청년Y 전용공간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 집(일참청)'을 만들어 화제를 모았다. 이런 가운데 YWCA 최초의 돌봄회원 공간 '플랫폼'이 목포YWCA에서 문을 열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간제 가정부'를 새로운 직종으로 개발해 현재의 돌봄서비스로 발전시키며 50년간 돌봄노동 공식화를 위해 노력해온 YWCA에 플랫폼의 등장은 뜻깊다. YWCA에는 9천명의 돌봄회원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활짝 열린 문

1월 30일(목) 목포YWCA 플랫폼에서 만난 조선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회원과 정선아 살림돌보미 회원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몇 달 지났는데도 올 때마다 기분이 좋고, 틈만 나면 오고 싶다고 했다.

“와~~~” 개소식 날, 돌봄회원들은 그저 감탄사만 나왔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환하고 밝은 공간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돌봄회원들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고 들었으나 이 정도일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학습을 위한 빔프로젝트와 스크린 칠판, 천장 위 최신 냉난방기,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이전엔 상담실 겸 다용도 탕비실에 돌봄회원들이 대기공간으로 함께 쓰던 자리였다. 이런저런 비품에 좁기도 했지만, 냉난방과 방음이 되지 않는 게 큰 불편이었다. 대화할 때면 칸막이 넘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할까 염려했다. 지금은 살림도우미가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옛날엔 당일 대기로 선착순으로 뽑혀 갔는데 덥고 추울 때 일도 못 받으면 더 힘들었다. 지금은 어느 카페 부럽지 않은 쾌적한 곳이자 창문 너머 경치를 볼 수 있는 '뷰'까지 생겼다.



플랫폼에서 만난 조선자, 정선아 회원(왼쪽부터). 인터뷰가 끝난 뒤 목포YWCA 활동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오른쪽).

조선자 회원은 “플랫폼이 생기니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얼굴 보면서 대화하면 공감대도 빨리 생기잖아요. 교육하기도 좋고, 회원들끼리 모여 정보공유하기도 좋아요”라고 했다.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고 하자 정선아 회원은 “누구나 쉴 수 있는 정거장 같은 곳이니 플랫폼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라면서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

플랫폼은 YWCA 회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등 노동권의 불안정 속에서 살아가는 지역 여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쉼, 소통, 공유의 장으로서 지역사회 정보교환과 네트워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밖으로 이어지는 문도 만들었다. YWCA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복도에서 바로 플랫폼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 것이다.

정선아 회원은 “오픈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입소문이 안 났어요. 지금은 YWCA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지역의 어느 사람이 와도 사용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찾았으면 좋겠어요”라며 홍보를 부탁했다.

YWCA는 울타리이자 자부심

조선자, 정선아 회원은 플랫폼뿐 아니라 YWCA 애기만 나오면 자부심이 가득했다. 이날 인터뷰를 위해 두 사람은 일하는 시간도 빼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

만큼 자신들의 돌봄서비스와 YWCA 활동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2008년 YWCA와 첫 인연을 맺은 조선자 회원은 소극적인 성격에 애도 먹었지만 지금은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기들 보는 낙으로 버텼죠.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젊은 층에게 아이돌보미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겁내지 않고 안정감을 줄 수 있잖아요.”

2006년 살림돌보미 교육을 받으며 YWCA에 발을 디딘 정선아 회원은 처음엔 남 앞에서 일하는 게 초라하고 부끄러워 일을 나오지 않았다. “울타리가 있어야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YWCA가 울타리가 돼줬다. 누구나 보금자리가 깨끗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깐 뿌듯하죠.”

YWCA 돌봄노동이 특별한 이유는 역사도 깊지만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높다는 점이다. 그래서 YWCA 돌봄회원들은 더 열심히 일하는 부담감도 있다고 조선자 회원이 귀띔했다. 올해 소망을 묻자 정선아 회원은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 국회 통과를 꼽았다. “50년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YWCA가 진짜 대단해요. 가사근로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권리를 보장해주면 좋겠어요.” 그들의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응답할 때다.

편견을 걷어찬 ‘야한’ 여자 뮤지컬 <레드북> 이야기

최형미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



‘문제작’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다. 질문은 종종 불편함, 아픔, 놀람이라는 감정의 수수께끼를 우리들의 몸에 던진다. 관객은 그것을 언어로 풀어가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

그러나 레드북은 문제작은 아닌 듯하다. 레드북을 보는 내내 고급스러운 음악에 취했고 톡톡 튀고 도발적인 대사에 유쾌했다. 젊고 자유롭고 대중적으로 표현된 페미니스트 뮤지컬이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다. 응답이다. 가볍게 그려진 스케치, 청사진, 깨면 사라질 꿈이 아니라 현실이길 바라는 꿈이다.

가장 보수적인 빅토리아 시대 잡지 ‘레드북’ 출간 후 시대 편견에 맞선 여자 이야기

게주인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안나가 솔직하게 목소리를 낼 때마다 세상은 그녀를 쫓아내고 가두고 비난한다. 안나의 목소리는 어느새 관객에게 메아리친다. “난, 뭐지?”

잘 생기고 성공한 변호사와 궁지에 몰린 안나의 만남은 고개를 가우뚱하게 한다. 낭만의 서사는 백마 탄 왕자를 힘 있는 존재로, 여성을 의존적인 존재로 묘사한다. 사람들은 그것이 낭만적 상황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폭력은 불평등에서 싹튼다. 그것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은 달콤한 가면을 쓴 낭만의 공식을 비판하며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꿈꾸었다. 작가 한정석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낭만의 코드를 가져와 변형을 시도한다. 유능한 변호사 브라운은 철자를 자꾸 틀리게 쓰고, 하녀 출신이지만 글쓰기를 시작하고픈 안나가 그를 가르치고 챙기며 변론을 위한 조언까지 하게 된다. 그렇지만 낭만의 전형성이 깨지지 않고 관객을 뻘한 기대 속에 머물게 한다.

금지된 것을 말하는 여자들

안나가 브라운과 헤어져 찾아간 곳은 글쓰는 여자들의 모임이다. 글을 쓰는 것은 언제나 권력가의 행위다.

일단 글이 쓰이면, 축적되고 지식이 되어 세상을 흔들고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새로운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구시대를 지배하는 책부터 불태웠고, 읽을 수 있는 책과 읽을 수 없는 책을 구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의 규칙이 생겨났다. 여자를 섹스의 도구로, 아이를 낳는 도구로 보는 가부장제 사회는 글쓰는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을 쓰는 것은 생각하는 행위고, 생각하는 여자를 지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글을 쓴다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안나가 만난 로렐 라이문학회 여성의 울분이다. 여자들은 몸의 이야기를 쓴다. 가슴의 응어리,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하나하나 글로 풀어헤친다. 그들이 쓴 새로운 이야기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짝사랑한 남자와 절친하게 나는 섹스 이야기는 여성의 성적 욕망을 이야기한다.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죽이는 이야기는 가정폭력을 사회문제화한다.

상상은 글이 되고, 글은 현실을 균열 낸다.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모인 여자들을 만나 비로소 안나는 글을 쓴다. 그녀를 파탄에 빠뜨린 첫사랑과의 낡은 침대 속 이야기는 밖으로 나와 두근거리고 움찔한 글과 책으로 변신한다. 여성의 사랑 경험은 낙인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세상을 향해 이야기한다.

‘존슨’의 몰락 그 너머에...


로렐라이언덕문학회를 이끄는 것은 로렐라이다. 남자의 몸을 가졌지만 여성으로 살아가기로 한 여성, 여성이 되기로 했지만 사랑했던 여인을 그리워하는 남성, 그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범주로 파악되지 않는 젠더퀴어다. 여성이기도 하고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경계를 넘나든다. 살해당한 연인을 그리워하며 “예쁘게 태어나서 사는 게 피곤한 여인. 섹스가 좋다고 남자가 좋다고...” 거친 남성적 유머코드가 불편하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예



가부장제 사회는 글쓰는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쁜 여자와 나머지가 아니었던가. 성적 대상과 나머지가 아니었던가. 그런 미숙함에도 여자와 남자의 경계를 흔드는 작가의 시도는 단순한 재미효과 이상이다. 남녀이원론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흔드는 정치적 몸짓이다.

문학평론가 덕 존슨은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안나를 유혹한다. 당신의 뮤즈가 되고 싶다면 부드럽고 애절하게 자신의 ‘존슨’을 흔들어야 한다. 남자배우는 육감적인 춤을 추며 안나에게 매달린다. 권력을 가진 남자의 성폭력은 무시, 강요, 협박, 완력이다. 유혹은 적어도 몽상적 설득과 대화가 아니던가. 작가는 성폭력을 부드럽게 회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안나는 그러한 존슨의 성기를 발로 차고 성폭력의 위협에서 빠져나온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멀리 있다.

안나의 공격에 존슨은 영원한 성불구가 되어 복수의 화신이 된다. 통쾌한 결론일까. 인류를 괴롭힌 가부장제는 무너져야 한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안나들은 남성의 폭력을 징계해도 남성이 부서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성의 목소리를 빌린 남성의 시각일 뿐이다. 싸워서 상대를 이겨야 한다는 남성들의 경험이다. 안나는 ‘난 뭐지?’를 물을 수 있었기에 ‘넌 뭐지?’를 물을 수 있는 존재다. 세상에서 외면당했기에 다른 존재를 쫓아내는데 망설이는 존재다. 여기에 페미니즘의 역설이 있다. 

2018 신년예배



2018년 한국YWCA연합회 신년예배가 1월 4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자 연합회후원회 이사가 '소원'을 주제로 설교했다. 고 목사는 바울처럼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사는 YWCA가 될 것을 당부했다. 김한결(인천YWCA) Y-틴 북부지역협의회장이 찬양 '이제는 내가 없고'를 불렀다. 한편, 중무예배는 지난 12월 29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으며, 이천진 한양대 교목실장이 '들길 따라서'를 주제로 설교했다.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2018년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가 1월 4일(목)부터 6일(토)까지 2박3일간 YWCA 버들캠프장에서 17개 회원YWCA 청년 대표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청년과 기독교미니즘, 청년과 지역사회, 청년기본법, 청년의 좋은 삶 등의 특강을 통해 청년 이슈를 고민하고 YWCA 청년운동의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총회에서는 2016년 재건 후 처음으로 대학·청년Y 운영규정을 제정했고, 2018년도 임원선출과 전국운동 주제를 채택했

다. 신임 회장에는 손지수 회원(대구YWCA)이 선출됐다. 또한 제1차 대학·청년Y 4부 지역협의회를 열어 4부 지역대표도 선출했다.

Y-틴 전국협의회



2018년 Y-틴 전국협의회가 1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2박3일간 부천 YWCA 버들캠프장에서 21개 회원YWCA Y-틴 88명과 실무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크콘서트 'Y-틴, 인권을 말하다'를 시작으로 청소년인권 골든벨, 활동 발표, 주제별 부스 체험활동(올바른 역사인식·탈핵·청소년 자살예방·안전한 먹거리·성범죄 예방), 장기자랑 'Y-팝 스타'가 이어졌다. 전국 중점운동 주제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슬로건으로 '지나간 발자취는 미래의 발걸음이 된다'를 선정했다. 신임 회장에는 서지수 회원(전주YWCA)이 선출됐다.

청소년 탈핵캠페이너 활동



겨울방학을 맞아 1월부터 2월까지 청소년 탈핵캠페이너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매주 화요일 탈핵 사전교육을 받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명동거리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활동소감을 나눈다. YWCA 청소년 탈핵캠페이너로 위촉을 받은 참가 청소년들은 앞

으로도 탈핵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0여명이 참여했다. 연합회는 2014년부터 방학마다 YWCA 청소년 탈핵캠페이너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겨울방학 씽크머니 금융생활체험교실



씽크머니 금융생활체험교실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1월 16일(화), 23일(화), 25일(화) 연합회 펍핀(Public Financial Interesting station)에서 각각 12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가치관 함양을 위해 태블릿PC에 탑재된 금융교육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합리적인 예산계획과 소비, 저축, 기부를 해보는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학습방식으로 진행됐다. 2월 13일(화), 20일(화), 22일(목)에는 지역상관인 명동을 탐방하며 시장을 체험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청소년 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TF 구성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12월 청소년 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책활동에 나섰다. Y-틴위원회 김영자, 이경옥, 정혜련, 최향숙 위원과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 참여하는 이번 TF는 1월 30일(화) 연합회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대책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결과(2016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공유하고 YWCA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사무총장 해외연수

2018년 한국YWCA 사무총장 해외연수가 2월 17일(토)부터 26일(화)까지 8박10일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다. 2015년부터 3년마다 5년차 사무총장을 대상으

로 진행되는 해외연수는 탈핵 선진국 탐방을 통한 역량강화와 YWCA 실천방안 모색을 목표로 한다. 이번 연수에는 14개 회원YWCA 사무총장(광주, 김해, 남양주, 논산, 대구, 대전, 목포, 사천, 여수, 제천, 창원, 청주, 파주, 하남)과 연합회 실무활동가 2명 등 16명이 참가한다. 올해 YWCA 탈핵운동의 중점과제인 에너지전환에 대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선진사례가 좋은 학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



제18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가 2월 23일(금)부터 26일(월)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청년의 힘든 삶'을 주제로 열린다. 한국YWCA 대표단은 대학·청년Y 8명과 Y-틴 8명 등 16명의 청소년, 청년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청소년협의회는 국가별 보고, 문화교류, 현장탐방, 액션플랜 기획 등으로 진행된다. 국가별 보고에서는 양국 참가자가 청소년 빈곤, 젠더 빈곤에 대한 청년들의 삶을 공유한다. 자유주제로 한국은 청년기본법을, 일본은 재일교포의 삶과 빈곤을 각각 발표한다.

생명숲돌봄센터 하반기 보육사교육



2017 생명숲돌봄센터 하반기 보육사교육이 12월 20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10개 센터 보육사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 해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을 공유하

연합회 소식 1·2월

고, 2018년 사업방향을 의논했다. 보육 사각지대에서 아동 '돌봄'에 최선을 다하는 보육사들이 지속적으로 돌봄운동의 선구자가 되기를 바라며 끝마쳤다.

일본침례교연맹 YWCA 방문



일본침례교연맹 공해문제특별위원회(위원장 노나카 히로키)가 1월 30일(화) 부산YWCA를 찾아 '그리스도인

으로서의 탈원전운동'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홍순옥 부산YWCA 회장, 노나카 히로키 위원장과 목사 8명,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한국과 부산의 탈핵운동, 고리1호기 폐쇄운동 경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부산을 방문한 일본침례교연맹은 고리핵발전소, 노후화된 월성핵발전소, 중저준위 동굴 처분시설 등을 둘러봤다.

- 소천** 심치선 연합회 전 실행위원 (2017.12.31)
- 인사** 전보 (2018.2.1)
 명진숙 국장(지역운동국) → 은학의집 관장
 오경혜 관장(은학의집) → 지역운동국 국장
 산전후휴가·육아휴직 (2018.1.15)
 정서연 간사(법인사무국)
 사직 (2017.12.31)
 이남희 부장(법인사무국)
 손서정 간사(중점운동국)

신간안내

파리의 여자들 장미란 저 | 문학동네 1만6천원

심리학자이자 여성학자인 장미란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이 프랑스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지 30년만에 그녀들의 삶과 내면의 이야기를 소설형식으로 재구성한 책을 출간했다. 인생 두 번째의 파리체류 10년간 장미란은 신 살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나라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프랑스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항우울제를 복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세상의 편견과 가족사의 고난을 뚫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분투한 파리 여자들의 치열한 인생이 담겨 있다. 격려와 재촉으로 이 책이 나오는데 큰 역할을 한 남편 장수복 사회학자는 '정신적 망명'으로서 파리 생활을 기록한 <파리일기>를 같은 시기 펴냈다.



YWCA 1922 장학금

안산YWCA 15만원, 춘천YWCA 11만원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7. 12. 1~2018. 1. 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기부	강송아, 강현중, 고세영, 광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순복, 권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귀옥,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미애, 김병호, 김사라,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린,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일곤,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민진,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인희, 박효정, 배유미,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정미, 백혜진, 서은미, 손서정,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양종원, 엄세현, 엄효정, 오소영, 오시정, 오영란, 오현숙,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윤정보,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숙, 이원호,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찬형, 이찬진, 이행자, 이희숙, 이희정, 임강숙, 임동욱, 임진영, 임향옥, 장미란, 장선희,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정대걸,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조은희, 진인식, 채정희, 최수나,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함희경, 홍기자, 홍현정, 황용백	3,845,000
개인기부	백보람, 이진용, 오경선, 최혜실, 한미미, 함희경, Y-틴 모금	530,400
회원YWCA	강릉YWCA, 거제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파주YWCA, 포항YWCA, 하남YWCA, 군산직할지부, 은학의집	22,799,131
어린이집	마산YWCA, 전주YWCA	665,13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약전평강교회, 하늘가족교회(구 성광교회), 한양대학교회 여성교회, 행복한교회	500,000
기관, 단체	마포구청 기독교회, 명성약국, NH농협은행(명동지점), 레오나다스, 르뱅(명동성당점), 에세레 젤라또(명동점), 전광수 Coffee House(명동성당점)	143,690
합계		28,483,351

회원YWCA 소식 1·2월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실무활동가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고양YWCA는 1월 17일(수) 1~3년차 실무활동가 20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법과 사례' 교육을 진행했다. 정선희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사업계획서 항목과 작성요령을 설명했다. 고양YWCA는 앞으로도 선임들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로 실무활동가 업무능력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

부천YWCA

이현순 총장

필리핀 재해지역 타클로반 지원



부천YWCA는 1월 13일(토) 청소년 대안공간 청개구리에서 열린 필리핀 타클로반 지원행사 준비회의에 참석했다. 타클로반은 2013년 태풍 하이옌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부천시청 청소년·시민단체들은 올해 4월 9일부터 18일까지 현지에서 '책과 함께하는 블리스 마을축제 : I LOVE PEACE'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YWCA

정지영 주임

내가GREEN지구 졸업식



수원YWCA는 1월 6일(토) '내가GREEN지구' 참가 학생과 학부모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졸업식을 열었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이번 졸업식에서는 'EM비누와 향수를 만드는 유해물질 줄이기 캠페인'도 선보였다. 2017 경기꿈의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내가GREEN지구'는 지난해 8월부터 14회기 동안 자원순환과 적정 기술을 배우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모색했다.

안산YWCA

문성은 주임

청소년 환경봉사학교



안산YWCA는 1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중학생 32명이 참가한 '청소년 환경봉사학교'를 열었다. 성인 환경소모임 '참살이' 회원들이 강사로 참여해 미세플라스틱, GMO, 에너지, 수질을 주제로 이론교육을 진행하고 미세플라스틱 제로 천연치약 만들기, Non-GMO 팝콘 만들기, 면생리대 만들기, 친환경 물병 오후(OOHO) 만들기 체험을 펼쳤다.

의정부YWCA

정진아 부장

청소년+어르신 친친데이



의정부YWCA는 1월 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늘예랑 노인주간보호센터 경증치매어르신과 연계한 청소년 동계자원봉사학교 ‘청소년+어르신 친친데이’를 열었다. 첫날 ‘노(know)노(老)데이’에서는 빙고게임, 노인문제 카드토론, 어르신체험 등으로 어르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친친데이’에서는 어르신들과 조를 나누어 할리갈리, 젠가 보드게임으로 친밀감을 더했다.

동부

거제YWCA

장미숙 간사

시니어합창 경연대회



12월 7일(목)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제3회 거제YWCA 시니어합창 경연대회가 열렸다. 거제지역 유일한 시니어합창 경연인 이번 대회에는 거제주민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7개팀이 참가했다. 하청늘푸른팀(하청교회)에 소속된 97세 최고령 어르신의 열창이 감동을 선사한 가운데 고현아르젠토합창단(고현교회)이 1등 사랑상을 수상했다.

김해YWCA

권종숙 팀장

김해YWCA 예비이사 모임



정기총회를 앞두고 예비이사 5명을 대상으로 ‘예비이사 오리엔테이션’이 1월 22일(월) 열렸다. YWCA 정체성과 이사회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정재연 회장의 환영인사, 찬양과 기도, 참석자 소개가 이어졌고 신입이사 활동을 기대하며 소통하는 다과시간으로 마무리됐다.

대구YWCA

배민희 간사

시무예배



대구YWCA는 1월 2일(화) 회관에서 유영은 회장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제목의 설교문으로 새해 시무예배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2018년 새해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며 사랑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했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YWCA 활동을 위해 기도했다.

마산YWCA

박주옥 부장

겨울방학 을자람교실

1월 2일(화)부터 26일(금)까지 초등학교 20명을 대상으로



로 겨울방학 ‘을자람(옳고 바르게 자람)교실’을 운영했다. 마산YWCA가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을자람교실은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스스로 설계하도록 돕는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이다. 참가학생들은 탈핵과 지구환경 교육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나만의 책을 만드는 북아트 활동과 민속놀이, 요리, 풍선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부산YWCA

윤영인 간사

시무예배



부산YWCA는 1월 3일(수) 회관에서 자원활동가·실무활동가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시무예배를 열었다. 찬양을 시작으로 임석웅 대연성결교회 목사의 설교 ‘나와 너, 너와 나’에 이어 덕담을 나누고 새해 시작을 함께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그리스도의 편지’ 신년예배

1월 9일(화) 사천YWCA 강당에서 2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신년예배가 열렸다. 김형우 삼천포교회 부목사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는 설교에서 자신을 낮춰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을 강



조했다. 참석자들은 YWCA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 드러내기를 기원하며 예배를 마쳤다.

양산YWCA

정은정 간사

신년하례



양산YWCA는 1월 9일(화) 임원진과 실무활동가 22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예배, 참석자 소개, 친교의 시간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덕담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돌봄과 나눔의 정의평화 공동체로서 역할을 다짐했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공동체 가치를 세우자’ 신년하례



울산YWCA는 1월 12일(금) 문수컨벤션 그랜드볼룸에

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출발을 다짐하며 '생명의 바람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세우는 해'를 주제로 신년하례식을 열었다. 시낭송과 예배를 시작으로 생명운동에 기반한 친환경, 여성, 청년리더십, 공동체 활동을 담은 YWCA 영상을 상영했다. 서정순 회장의 신년사, YWCA 4대과제 선포식이 이어졌다.

진주YWCA

송광은 간사

'나의 양식' 신년예배



진주YWCA는 1월 4일(목) 회관 2층 단비도서관에서 자원지도자, 실무활동가, 회원 16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년예배를 열었다. 송진형 옥산교회 목사는 요한복음 4장 31~34절을 통해 '나의 양식'을 주제로 설교했다. 참가자들은 '그 어떤 양식보다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붙들고 살아가자'며 다짐했다.

창원YWCA

김진아 간사

인문학 동아리



창원YWCA 인문학 동아리 '인문학의 숲'은 올해 첫 도서로 <나를 보내지마>를 선정하고, 1월 4일(목) 9명이 회관에 모여 인간복제 문제와 인간 존엄성에 대해 토론했다. 2016년 9월 회원활동을 시작한 '인문학의 숲'은

매달 정기모임을 통해 책을 읽고 토론하며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다.

포항YWCA

김수영 간사

지역아동센터 행복나누기



포항YWCA는 포스코1%나눔재단 지원으로 12월 20일(수)부터 1월 4일(목)까지 8개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선물을 전달하고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포항제철소는 2006년부터 학습지원 봉사단을 꾸려 매주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방과후 학습을 돕고 있다. 2015년부터는 포항YWCA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돕는 재능기부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북부

동해YWCA

전민지 간사

청소년 발언대



동해YWCA는 1월 9일(화) 묵호중학교 대강당에서 전교생 4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 발언대'를 진행했다. 14명의 학생이 주취감경(술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가벼운 벌을 내리는 것), 청소년 참정권, 배움의 의미, 공부만큼 중요

한 경험, 이성교제 등을 주제로 발언을 펼쳤다. 청소년들이 생각을 표현하며 자신감을 기르는 시간이 되었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면생리대' 나눔드림 봉사활동



1월 17일(수) 서울YWCA회관 다목적실에서 겨울방학맞이 나눔드림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청소년 30여명은 저개발국 여성을 위한 면생리대를 손바느질로 직접 만들고, 생리대 파우치를 냅킨아트로 장식했다. 완성된 면생리대와 파우치는 서울YWCA 청년봉사단을 통해 미얀마와 탄자니아 여성에게 전달된다.

속초YWCA

정인숙 간사

신년예배와 시무식



속초YWCA는 1월 2일(화) 본부와 부속시설 실무자 16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관에서 2018년 신년예배와 시무식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한해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인천YWCA

오수진 간사

행복나눔 장학금&기부금 전달식

인천YWCA는 2017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에서 모은



920여만원의 행복나눔 기금을 전달하는 '작은 정성, 큰 사랑 나누기'를 12월 21일(목) 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청소년 13명이 장학금을, 주민 10명이 기부금을 각각 전달받았다. 시민들의 자원절약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YWCA가 주관하는 녹색나눔장터는 지난해 16차례 진행됐다.

서부

광양YWCA

이현숙 간사

푸드뱅크 나눔



광양YWCA 푸드뱅크는 1월 18일(월) 회관 주차장에서 소외계층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식품을 나누는 '나눔의 삶 행복한 기부! 푸드뱅크와 함께!'를 진행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13명은 이날 어려운 이웃들에게 밀크 티 6천여개를 전달했다.

광주YWCA

손유영 부장

광주기독교단체연합 신년예배

광주지역 기독교단체 YWCA, YMCA, NCC, CBS는 1월 5일(금) 광주YWCA 강당에서 함께 신년예배를 진행했



다. 광주NCC 회장인 박상규 성광교회 목사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세상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명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한 뒤 “평화를 위해 힘쓰자”고 권면했다. 4개 단체 대표와 회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소방안전·응급처치 교육



목포YWCA는 1월 31일(수) 강당에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직장 생활 속 재난 응급상황 대비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 강명선 목포과학대 BLS센터 교수가 응급처치 이론과 심폐소생술 실습, 소화기 사용법 등을 강의했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신년예배와 시무식

서귀포YWCA는 1월 2일(화) 대강당에서 이사, 실무자 30여명이 모여 신년예배와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상호 서귀포중앙교회 담임목사는 “무엇 먹고 사나”라는 설교로 서귀포YWCA가 “책임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떡국을 함



께 먹으며 덕담을 나눴고, 올해도 희망찬 YWCA가 되기를 다짐했다.

순천YWCA

신현아 간사

Y-틴 '오라또래야' 총회



Y-틴 '오라또래야'는 53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0일(토) 순천YWCA 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2018년 임원선출에서는 양희주(순천여고 2학년) 회원이 회장에, 김어진(강남여고 2학년) 회원이 부회장으로 뽑혔다. 이날 총회는 지난 한해 수고한 임원과 Y-틴 회원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박수로 따뜻하게 마무리됐다.

익산YWCA

장운미 간사

구인·구직 무료상담



익산YWCA 장년(고령자)인재은행은 성탄절과 연말연

시를 맞아 12월 22일(금) 회관 앞에서 시민들에게 ‘사랑의 빵’ 나눔과 구인·구직 무료상담을 진행했다.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 위탁으로 만50세 이상 장년(고령자)을 대상으로 교육·취업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는 익산YWCA 장년(고령자)인재은행은 취업알선 후 직업·보수교육 등 사후관리를 통한 직무향상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목회자 초청 간담회



전주YWCA는 1월 11일(목) 고궁담에서 월례아침기도회를 맡아준 목회자 14명을 초청해 ‘전주YWCA와 동행! 고맙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명희 회장과 이사, 실무자 등 11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지역교회와 함께 ‘탈핵으로 생명평화, 성평등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마련됐다.

제주YWCA

김수열 간사

2018년 첫 걸음



제주YWCA 이사와 위원,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3일(수) 회관에서 2018년 시무예배를 열었다. 이순구 제주안디옥교회 목사는 “다시 새 힘을 얻자”를 주제로 이사야 40장 27~31절 말씀을 통해 “지역사회

에서 제주YWCA가 하나님의 기관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이 새해 소망을 담은 축복 덕담을 나누며 마쳤다.

중부

논산YWCA

이수정 간사

실무활동가 양성훈련



논산YWCA는 1월 3일(수) 실무활동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천진 한양대 교목실장이 ‘하나를 넘어 우리로’라는 주제의 양성훈련에서 YWCA가 하나님의 기관으로 바로 설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YWCA 목적문에 맞는 의사소통과 관계형성으로 하나님나라 운동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대전YWCA

이진주 간사

제114차 탈핵 불의 날 캠페인



매주 화요일마다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대전YWCA는 1월 16일(화) 회관 앞에서 제114차 캠페인을 열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사업제검토위원회’가 밀실운영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대전YWCA는 핵재처리실험 반대를 촉구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대전YWCA 실무활동가 3명과 부속기관장 7명이 참석했다.

세종YWCA

김영옥 간사

신년예배와 시무식



1월 2일(월) 세종YWCA 본부를 비롯한 5개 부속기관이 모여 신년예배를 진행했다. 이희경 사무총장 사회를 맡은 이날 예배는 장은정 성인권센터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김창옥 회장이 시편 119장 '복 있는 사람'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시무식은 본부와 부속기관 실무자 소개, 새해 다짐을 나누며 마쳤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지구별도서관 문화교실



제천YWCA 지구별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1월 9일(화)부터 30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인성 보드게임'을 진행했다. 여가시간 홀로 스마트기기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은 이번 문화교실을 통해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면서 함께 소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배웠다.

천안YWCA

정상란 팀장

'청년희망세상' 간담회

천안YWCA는 1월 23일(화) Y-틴, 대학·청년Y, 실무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운동 다목적카페 '청년희망세상' 개소 준비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생활복지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희망세상'은 2017 드림콘서트 모금 중 1천만원 예산으로 천안



YWCA 생명사랑공동체관 A동 1층에 마련된다. 청년취업 특강, 성경과 함께하는 인문학 특강 등을 펼칠 예정이다.

청주YWCA

김광식 간사

'명예롭게 은퇴한 사람들의 모임' 발족



청주YWCA 명예회(명예롭게 은퇴한 사람들의 모임)가 1월 16일(화) 청주YWCA 소망실에서 은퇴 이사 8명과 실무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열었다. 명예이사, 증경회장, 은퇴한 사무총장과 시설장의 모임인 '명은희'는 청주YWCA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YWCA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할 계획이다.

충주YWCA

김세희 팀장

창립기념 회원대회



충주YWCA는 12월 20일(수) 충주시 청소년수련원체육관에서 회원과 후원자 250여명을 초청해 창립기념 회원대회를 열었다. 32년 동안 함께한 회원과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장기자랑 등으로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제1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한국여성지도자상은 다양한 분야 여성지도력 발굴로 여성들의 도전을 격려하며 희망을 제시해왔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뛰고 있는 숨어 있는 여성 지도자를 추천해주시요

The 16th Korea Women's Leadership Award

■ 추천부문과 시상내용

부문	자격	시상
대상	전문적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여성지도력 향상에 공헌한 대한민국 여성	상패, 상금 3천만원
젊은지도자상	전문성, 창의력을 바탕으로 미래 여성의 역할을 열어가는 50세 미만 여성	상패, 상금 2천만원

■ 후보추천인 자격

-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 위원
-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가 추천인으로 위촉한 개인
- 교육계 인사 및 대학총장
- 종교 및 사회단체 대표
- 언론기관 대표 및 언론인
- 일반시민 또는 동료사원 20인 이상의 개인

■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 소정양식
- 후보자 이력서 1부 : 소정양식
- 후보자 공적서 1부 : 소정양식
- 명함판 사진 1장
- 증빙자료

■ 추천방법

- 추천서 배부 한국YWCA 홈페이지(www.ywca.or.kr)에서 추천서 내려받기
- 추천서 접수 추천서를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ywca@ywca.or.kr) 또는 우편접수 (우 04538)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지도자상운영위원회
- 접수기한 2018년 3월 9일(금) 우편접수 마감당일 소인 유효
- 문의전화 (02)774-9702 한국여성지도자 상운영위원회

■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

- 발표 2018년 3월 말
- 시상 2018년 4월 17일(화)

